

星武

제33호 | 2006. 7.

특집 / 공사 총동창회 정기총회
홀커밍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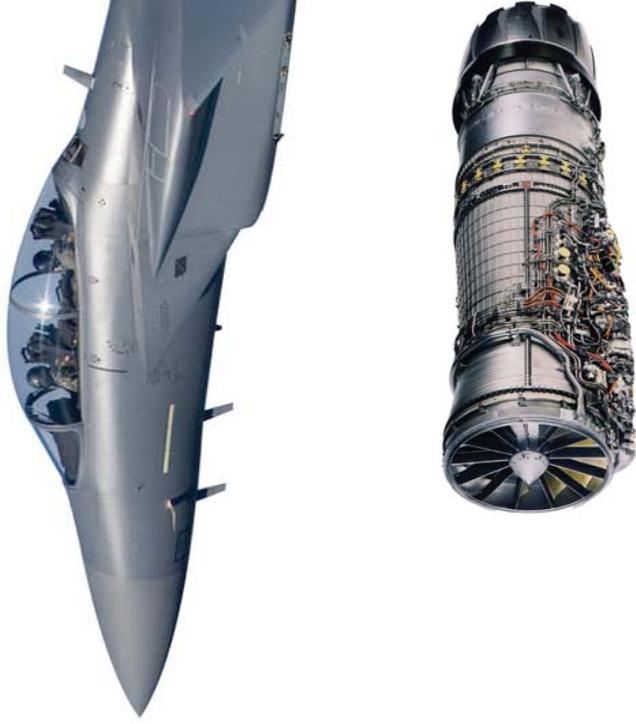
星武學



空軍士官學校總同窓會

<http://www.kaiaaa.or.kr>
04airfa@hanmail.net

Now at a
theater near you



F110 engine
power for the F-15K





2006 퍼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
www.kimyoung.co.kr

대학편입은 희망입니다



기회가 많을수록 공정한 사회입니다.
입시 한 번으로 인생을 결정짓는 교육제도에서
대학편입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성순희

94년 숙명여대에 편입한 김영 출신 고려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김영학원에서 후배양성을 위해 영재강의를 한 후, 미코으로 유학
현재 미국 Bladenburg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이다.

2007년 1월 190여개 대학 편입학 선발예정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필자
2007성공편입을 목표로! 기초부터 확실하게
편입영어 수준별 맞춤 강의, 상위권 대비반, 학사편입 전문반, 수학강좌반

개강 : 매월 초 **김영^{선생}** 대학편입 전국 대표 ☎1588-7022

보안 시스템 및 방호 시스템 전문기업 (주)두리에스



■ 공항감시



■ 항만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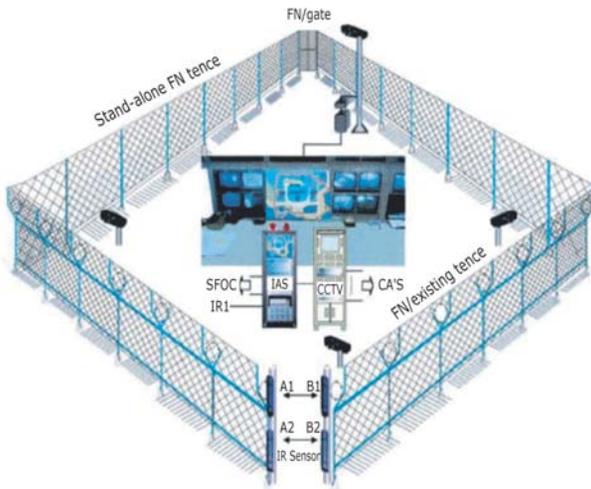
■ 시설을 감시



■ 관제센터

◎ 통합외곽경계시스템의 주요 특징

- ▷ 고감도 “야간용” CCTV시스템
 - 야간 경계 지역을 중첩 감시
 - 이동물체 발견시 자동추적 시스템 연동(영상추적 시스템)
 - (이동물체 발견시 경고음 발생, 지휘통제 요원은 시각, 청각으로 침투자 확인)
- ▷ 광망 센서에 의한 침투 경계
 - 광망센서에 의한 외곽 침투(절단, 월담, 굴도 침투) 방지 및 검출
 - CCTV와 광망센서의 이중경계 시스템으로 운용하여 완벽한 연동 시스템 구현



【공군 비행장 및 중요 기지와 탄약창 등 설치 “예”】

◆ 주요 실적 및 적용 사례

- ▷ 육군 22사단 남북 철도 및 도로 감시 CCTV 시스템 설치
- ▷ 육군 제5861부대 OO지역 CCTV 설치
- ▷ 해군군수사령부 무기고 탄약창 CCTV 설치
- ▷ 제군사령부 영상감시장치 설치
- ▷ 계룡대 OO지역 CCTV 시스템
- ▷ 양양공항 외곽 감시카메라 설치
- ▷ 강남구 '04년 방범 CCTV 230식 설치
- ▷ 강남구 '05년 방범 CCTV 100식 설치
- ▷ 한국수자원공사 댐 방호용 CCTV 시스템
- ▷ 부산세관 감시용 CCTV 시스템
- ▷ 한국도로공사 CCTV 430식 설치



【KP-DE500 0.000008 Lux】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ergibt sich durch

$$y^{u,v}_m = -\Lambda_{or}^x (\Lambda_{or}^r \Lambda_{or}^m - \Lambda_{or}^s \Lambda_{or}^t)$$
 oder mittels

$$y^{u,v}_m + \Lambda_{or}^x y^{r,t} \equiv 0 \dots \dots (16)$$
 (14) und (16) sind die zwischen dem Feldgleichungen (11), (12) ...
 durch

$$\Lambda_{or}^x (\Lambda_{or}^r \Lambda_{or}^m - \Lambda_{or}^s \Lambda_{or}^t)$$
 bzw

$$y^{u,v}_m + \Lambda_{or}^x y^{r,t} \equiv 0 \dots \dots (16)$$
) sind die zwischen dem Feldgleichungen (11), (12) ...
 Identitäten die Kompatibilität der
 (12) zusätzliche Bedingung, erhält man folgende
 wird möglich sein, die Gleichungen (11), (12) für ein
 (12) durch (12) und durch eine Identität
 ist $x^a = konst = a$ alle Feldgleichungen (11), (12) ...

$$\sqrt{E=MC^2}$$

c:\>copy a:*.dll c:\windows\system
 c:\>system

d:\windows

Picasso

Albert Einstein

Bill Gates

내일의 대한민국에는
 10명의 피카소가,
 100명의 아인슈타인이
 1000명의 빌게이츠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 2004년 8월 23일 개원
 파주캠프 2006년 4월 3일 개원
 양평캠프 2008년 3월 개원 예정
 www.english-village.or.kr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영어마을



중국에서보다 **중국어** 를 더 잘 배울수 있는곳!

이얼산 中國語

Yiersan Chinese Culture Center



6월 1일(화) 개강일

중국을 삶의 전략으로 선택할 때는 트렌드를 추종한다는
알파한 치신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중국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삶의 방편이 되는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인생 자체를 바꾸는 '자기 소명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

- 이얼산 CEO칼럼 中 '중국을 향한 출사표'

나를 만드는 힘 - 이얼산!

시청이얼산 추천강좌!

1. 초급, 중급, 고급, 비즈니스 회화
2. 고등 HSK 구술작문, CCTV받아쓰기반
3. 직장인을 위한 기초, 초급, 중급회화(13:00-13:50)
4. 평일 낮 비즈니스 회화 및 고급회화 신설

강남이얼산 추천강좌!

1. 중국어기초 2개월완성- Y.E.S 초집중반
 - 한국인 강사(개념이해) + 중국인 강사(회화, 활용연습) / 1일 4교시, 한, 중 교차수업진행
 - 주 5일 09:00-12:50 / 14:00-17:50 / 18:30-21:00
2. 영어로 배우는 중국어
 - 영어전공 중국 원어민과 일대일 집중회화, 중문 에세이 심화연습
3. 주말에 배우는 중국어
 - Y.E.S 토요집중과정 1일 4교시, 한, 중 교차수업
 - 매 주 토요일 오전 09:00-12:50 / 오후 14:00-17:50
4. 초중등 HSK 초집중반 - 4명씩별 전문 강사진 직강!!
 - 주 5일 (6급반) 09:00-12:50 / (입문반)10:00-13:00
 - 실전감각 향상, 영역별 집중공략
5. 나에게만 맞춤 중국어학습
 - 시간도 내용도 수강생 수준에 맞추어 진행
6. 발음성조교정 / 기초작문 클리닉 - 토요집중반
 - 소수정예반, 오류부분 개별 수정
 - 매 주 토요일 10:00-11:30 발음성조 클리닉 / 11:30-13:00 기초작문 클리닉

관광가이드반 합격률 98%의 신화!!

국사, 지리, 관광법규, 관광개론 등 전 과목 핵심요점 강의!! 오직 이얼산에서만 만나 실수 없습니다!!
• 수업 : 매주 토, 일요일 09:00~12:50 • 강사 : 박규영강사

유학 아카데미 - 100% 합격신화! 중국명문대 진학률 1위 이얼산

2003년부터 3년 만에 총 217명 합격!
2005년 9월 진학(총 105명 합격) 청화대(6명), 복단대학(45명), 상해교통대학(10) 등

Top3입시반/Top10입시반/100%합격반
청화대, 복경대, 복단대 / 절강대, 상해교통대, 남경대 / 복단대, 인민대, 상해교통대, 절강대, 남경대 등

중국명문대 입시반 편입학 설명회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 이얼산 시청본원 • 문의 : 775-7000



- 시청본원 775-7000(시청역 1번출구)
- 수원본원 031-245-1230(아주대 삼거리)
- 유학아카데미 775-7000(시청역 1번출구)
- 강남본원 545-7000(강남역 7번출구)
- 분당본원 031-711-9102(미금역 3번출구)
- 홈페이지 www.yiersan.com





성공이 모여드는 곳, 김포 양촌 지방산업단지

강화
8km

김포신도시
4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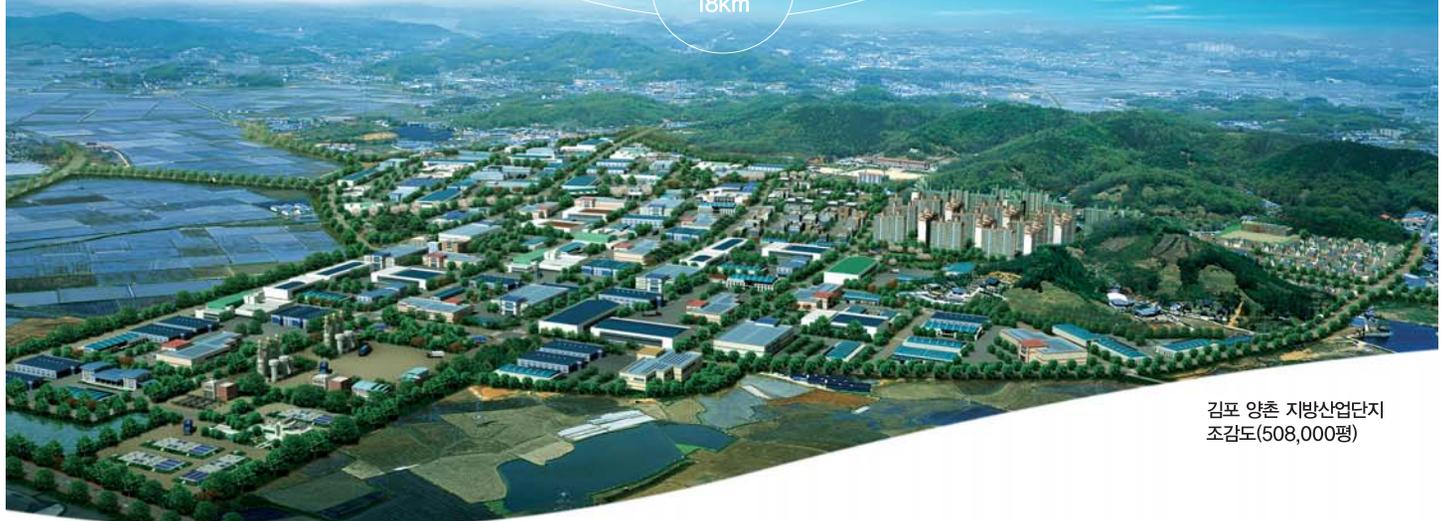
일산신도시
12km

서울
20km

김포공항
18km

인천항
17km

인천국제공항
23km



김포 양촌 지방산업단지
조감도(508,000평)

사통팔달의 교통환경과 서울·김포 배후도시가 한 자리에!

- 인천 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국제교류의 중심축에 위치한 입지조건
- 358만평의 김포 배후단지과 친환경 단지조성 등 기업에 유리한 생활단지
- 산업연구소 및 대학 등과 유기적인 업무가 가능한 R&D 단지
- 서울 등 수도권과 인접한 네트워크 형 복합산업단지

2006년 상반기 분양예정 문의 : 031)220-3231

※ 상기 거리는 본 사업지와의 직선 거리를 개략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星武

Contents



표지는 공사 교정 입구에 위치한 성무탑



국방부장관 내외분으로부터 축하를 받는 졸업생들



동창회기를 이양하는 신규 회장

공군소식

- 공군참모총장, 미국 등 3개국 공식 방문 _ 8
- 대이어 하늘 지키는 '빨간 마후라' _ 8
-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_ 9
- 국산 경공격기 공대지 미사일 발사 _ 9

모교소식

- 공사 제58기 사관생도 입교식 거행 _ 10
- 공사 제54기 졸업 및 임관식 거행 _ 10
- 공군참모총장, 공사에서 특별강연 _ 11
- 공사,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_ 11

공사 총동창회 소식

- 공사 총동창회 후원 졸업생도 격려만찬 _ 12
- 부대 방문 _ 13
- 임시 이사회 개최 _ 14
- 총동창회장상 수여 _ 15
- 삼사 총동창회 회장단 친선모임 _ 15

특 집

- 공사 총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_ 16
- 공사 총동창회 홈커밍 행사 _ 23

회원/특별기고

- 납지않은 인생 | 정재식(공사 5기) _ 32
- 51년 전의 신문기사와 편지 | 이교안(공사 1기) _ 35
- 못 다한 하늘사랑 | 윤석문(공사 8기) _ 41
- 21세기 원시인 : 우리집 "머슴각하" | 윤여훈(공사 8기 서진태 회원부인) _ 45

- 50 _ 50년 전과 오늘의 나 | 김경오(대한민국 항공회 총재)
- 53 _ 어머니 냄새 | 이봉길(공사 18기)
- 56 _ 암과 함께 생활하면서 | 조영기(공사 22기)
- 59 _ 창밖에 봄비가 내리면 | 정민남(공사 12기)
- 60 _ 투란도트(Turandot) | 최재구(공사 13기)

항공우주산업 소개

- 66 _ 한국항공우주산업(주)
- 68 _ BAE SYSTEMS
- 72 _ GE-Aviation

각 기생/미주지회 동정

- 74 _ 1~15기 사관 동정
- 81 _ 공사 미주 서부/동부지회 동정

총동창회 알림

- 83 _ 정기총회
- 88 _ 평생회비 적립현황
- 93 _ 공사 교육진흥재단 예·결산 공고
- 95 _ 전역자 현황
- 97 _ 결혼/부음
- 98 _ 주소변경
- 100 _ 기수별 동기생 회장단
- 102 _ 공사 총동창회 홈페이지 안내
- 102 _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 103 _ 편집후기/기고안내



공사 성무관에서 개최된 홈커밍 행사



하늘을 나는 비거의 모습



8기 사관 동정 중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 앞에서

공군참모총장, 미국 등 3개국 공식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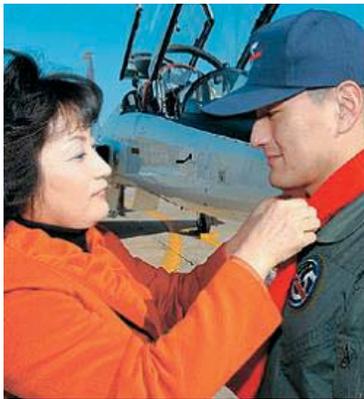
김성일 공군참모총장이 2006년 5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미국과 브라질·페루를 잇따라 방문했다.

16, 17일의 미국 방문시에는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인 F-15K의 적기 전력화 등 한미 공군 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17일과 20일, 각각 브라질과 페루로 이동, 해당국 공군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만나 양국 간 군사교육 교류와 방산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국산 훈련기인 KT-1과 T-50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세일즈 외교'도 펼쳤다.



代이어 하늘 지키는 '빨간 마후라'

“아버님이 지키시던 하늘을 이제부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2006년 2월 2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고등비행교육 수료식. 동료들과 함께 꿈에 그리던 ‘빨간 마후라’를 어머니의 손을 거쳐 목에 건 박인철(공사 52기) 중위의 감회는 남달랐다.



그의 부친인 고(故) 박명렬 소령(공사 26기)은 1984년 F-4E 전투기를 조종하여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에 참가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다. 박 중위는 못다 한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1년 8개월간의 어려운 비행 교육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종사의 영예로운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목에 걸고 조종총장을 가슴에 달게 된 것이다.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2006년 5월 21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등 6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8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직접 제작한 고무동력기 및 글라이더와 실제 항공기를 닮은 유·무선 모형항공기를 띄우며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겨뤘다.



국산 경공격기 공대지 미사일 발사

2006년 1월 서해 직도사격장 상공에서 국산 A-50 경공격기가 공대지 미사일 매브릭(AGM-65G)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이 기종은 2002년 8월, 시제 1호기 초도비행을 시작으로 2003년 2월에는 초음속돌파, 2005년 9월에는 T-50 고등훈련기로 탄생하여 공대공 기총 발사, 무장투하,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거쳐 마지막으로 공대지 유도탄을 장착하여 발사시험에 성공한 것이다.



공사 제58기 사관생도 입교식 거행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제58기 공군사관생도 입교식이 2006년 2월 24일 오전 10시, 신입생 학부모와 친지, 선배 사관생도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16명의 여생도와 태국의 위탁생도를 포함한 58기 사관생도들은, 지난 1월 20일 예비생도로 가입교하여 혹한속에서 5주간에 걸친 가입교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이날 정식 사관생도로서의 첫걸음을 디디게 되었다.

공사 제54기 졸업 및 임관식 거행

공군사관학교 제54기 졸업 및 임관식이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006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17명의 여생도와 태국 위탁생도를 포함한 193명이 졸업한 이날 전체수식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황은정(23세, 女) 소위는 공사 개교 이래 입학과 졸업 모두 일등의 영예를 차지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공군참모총장, 공사에서 특별강연

김성일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2006년 4월 11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지향적 지도자의 자질과 군인관”이란 주제로 전생도 대상 특별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특강에서 김 총장은 “공군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사관생도들이 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견학이나 교환방문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미래지향적 지도자는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사고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공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의 학부모 1,0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효(孝)의 참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어버이날 기념식을 2006년 5월 4일 성무연병장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생도들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담아 작성한 감사의 글 낭독을 비롯하여 카네이션 증정, 어버이날 노래 제창, 생도 퍼레이드, 축하비행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사 총동창회 후원 졸업생도 격려만찬



공사 총동창회는 2006년 2월 15일 공사 하늘관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공사 54기 생도들에게 졸업 및 임관 축하 만찬을 베풀어 주었다. 이 자리에는 졸업생과 공사 지휘관 참모 및 총동창회 임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하였으며, 공군 스윙 밴드의 은은한 연주가 만찬장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케이크 절단과 축배, 회장격려사, 생도대표 답사순으로 진행되었다.

졸업생 등 참가자들은 만찬을 즐기면서 뜻있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으며 만찬 말미에는 전 생도들에게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기념시계를 선물하였고 이어 전원이 교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만찬을 끝맺었다.



한편 만찬 전 하늘관 2층 소극장에서 이기현 총동창회장이 약한 시간에 걸쳐 졸업생을 위하여 “자기개발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임관 후 부대 생활에서 장교로서 지녀야 할 덕성, 그리고 지켜야 할 품성을 예를 들어가면서 강의하여 생도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다.



부대 방문

총동창회 회장단은 2006년 3월 23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5월 18일에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을 각각 예방하여 불철주야 영공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지휘관 참모 및 부대장병을 격려하였다.



이날 회장단은 가족과 함께 부대 현황을 청취하고 비상대기실을 견학하는 등 든든한 영공방위의 현장을 확인하면서 옛 추억을 더듬어 보기도 하고 아울러 회원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다.



임시 이사회 개최



총동창회는 홈커밍 행사를 앞두고 2006년 4월 19일 공군회관에서 1기 선배에서부터 19기 사관까지 회장단을 소집하여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금년도 홈커밍 행사의 기본취지와 세부계획 및 협조사항에 대하여 총동창회와 사관학교

의 설명을 청취하고 각 기별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시 반영토록 하였다.

금년도 홈커밍 행사는 졸업/임관 50주년을 맞는 제4기생 위주로 축하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사관학교 학사일정에 선배들이 행사를 통합하여 시행하여 줌으로써 생도교육에 협조토록 하며, 생도들에게 선물할 간식비는 기생별로 성의껏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기타 총동창회에서 제안한 “자랑스런 공사인 표창”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를 내부 규정화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본 규정에 의거 각 기생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기별로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총동창회장상 수여 - 공사 제54기 졸업 및 임관식 -



2006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제54기 졸업 및 임관식(제2부 행사)에서 공사 총동창회 이기현 회장은 조원기 소위에게 총동창 회장상을 수여하였다. 본 상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동기생 중에 신망이 높은 생도를 추천받아 수여하는 상으로서 통상 동기생회장에게 수여하여 왔으며 부상은 금메달(순금 10돈)로 하여 이를 전통화하도록 하였다.



삼사 총동창회 회장단 친선모임

공사 총동창회 주관으로 육·해·공 삼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단이 6월 30일 성남비행장 체력단련장에서 친선모임 겸 신임 공사 총동창회 회장단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정린 육사 총동창회장, 하종근 해사 총동창회장, 이기현 공사 총동창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운동과 오찬을 나누면서 친선도모와 함께 단합을 공고히 하였다.

공사 총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 공사 14기, 총동창회 업무 인수 -

공사 총동창회는 2006년 6월 21일 공군회관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업무 및 예산결산 보고와 총동창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총동창회 알림’ 참조).



이어서 제14차년도 공사 총동창회장으로 이억수 전 공군참모총장(제26대)을 선임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 14기 운영기수의 회장단이 출범, 제14차년도의 총동창회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 1년간 총동창회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사 13기생으로부터 모든 업무를 인수하였다.



제14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임원

회 장 : 이억수
부 회 장 : 안택순, 박종선, 허규열,
신재철, 정병호, 전창배
감 사 : 정성규
사무총장 : 김길상
후 원 : 공사 14기 사관 일동

이 임 사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 동창회원님!

그리고 영원하고도 가장 소중한 친구인 13기 패공회 동기생 여러분!

오늘 저와 13기 사관 일동은 우리 공군과 모교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열정으로 공사 총동창회를 운영해 온지 벌써 1년이 지나, 14기 사관에게 총동창회 운영을 인계하는 자리를 함께 하고 보니, 세월이 참으로 우수와 같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총동창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셨던 1기 선배님을 비롯하여, 선·후배 동창 여러분들의 충정이 가득한 성원과 협조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13기 사관들은 1961년 성무대에서 동기생의 인연을 처음 맺은 지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으나, 세월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도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영원한 동기생이며, 영원한 친구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하고도 추억어린 지난 1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이 회장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자기 일처럼 협조하고 참여해 준 동기생 여러분과, 항상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성을 다해 총동창회를 저와 함께 이끌어 온 김양수 동기생 회장과, 특히나 온 정열을 다 바쳐 총동창회 업무에 헌신하였던 강신해 사무총장에게 무한한 고마움과 우정을 보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창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13기 사관은 우수생도 해외견학 지원 사업, 사관생도 졸업 축하연회, 홈커밍

행사 및 4기 선배님 졸업/임관 50주년 축하행사 지원, 홈페이지 개선, 그리고 3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의 교류 활성화와 국방부장관과의 간담회 개최 등 많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 총동창회는 우리 공군과 모교와 함께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이 우리 후배들이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도 총동창회를 더욱 내실 있게, 그리고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총동창회원 모두에게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며, 또한 우리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룩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총동창회 운영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 모두는 더욱 더 존경과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영원한 선·후배임을 재다짐하고,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모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이억수 신임회장에게 축하와 함께 14기 사관 여러분들께서 총동창회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간 애정 어린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선·후배 동창 여러분과 영원한 전우인 우리 13기 동기생 모두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6월 21일

이임 총동창회장 이 기 현

취 임 사



존경하는 공사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전통과 명예에 빛나는 공사 총동창회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공군사관학교가 개교된지 57주년을 맞게 되었고 그동안 8,200여명의 회원을 배출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회원님들의 피와 땀으로 조국의 영광을 굳게 지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최신예전투기인 F-16, F-15로 무장한 세계적인 막강한 공군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6·25전쟁과 작전 중에 산화하신 많은 동창 회원님들의 희생이 공군과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총동창회는 1993년 4월에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13년이란 짧은 기간에 역대회장님과 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성공적으로 총동창회의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시기로서 우리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한 안보불안, 심화되고 있는 이념과 부의 양극화 현상, 대북경각심의 이완으로 인한 안보문제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국가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해온 우리가 공사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정신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인 모두가 힘을 합쳐 해야 할 일은 우선, 회칙에 명시한대로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와 후배, 현역과 예비역 상호간 교류도 활성화하여 동문들이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우리사회의 불우한 이웃과도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도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군과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군사관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심신을 연마하면서 조국애와 명예를 키웠고 임관 후 공군은 물론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준 곳도 바로 공군과 공군사관 학교였습니다. 끝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안보환경 하에서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는데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일을 이룩하는데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공사인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됩니다. “국적은 바뀌어도 모교는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회원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것을 긍지를 갖고 한 마음이 되어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사랑방과 알림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회원 간의 교류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14기 동기생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모든 회원들이 공사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상부상조하면서 국가와 군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사 총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총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이기현 회장님과 13기 사관 선배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한민국 공군과 공사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6년 6월 21일

신임 총동창회장 이 익 수

축 사



존경하는 윤자중 총장님!

초대 사관 최규순 회장님! 역대 참모총장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공사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오늘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2006년도 정기총회가 이처럼 성황리에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각 기별 임관기념행사의 통합을 비롯하여 회원들의 애교심 고취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으로 총동창회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이임하시는 이기현 회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신입회장으로 추대되신 이억수 총장님과 임원을 맡게 되신 14기 선배님들께도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께서 평소 모교와 공군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대변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관학교는 공군이 추구하는 목표를 뒷받침하고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할 「정예 공군장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관생도 선발과 교수 및 훈육요원의 자질 향상,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생도들

의 교육성과를 높이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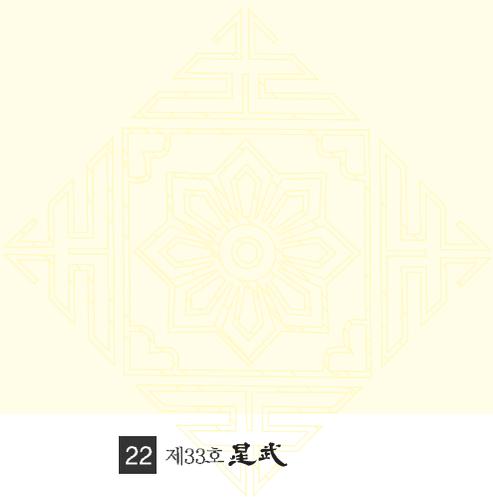
이같은 저희들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기총회를 계기로 총동창회가 더 큰 발전 이루기를 기원드리며, 현역에 있는 저희도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동창회의 2006년도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안하심과 이억수 회장님이 이끄시는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6월 21일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중장 이 찬



공사 총동창회 홈커밍 행사

- 공사 4기생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 -

공사 총동창회원의 영원한 모교인 아름다운 성무대에서 2006년 5월 19일에 개최한 홈커밍 행사는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 이 날의 행사는 회원의 모교방문은 물론, 특히 졸업 및 임관 50주년을 맞이한 공사 4기생이 주체가 되었고 30주년, 20주년을 맞는 24기, 34기생도 한자리에 함께하여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매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공군사관학교 성무관에서 개최된 홈커밍 행사

작년까지만 해도 기생별로 거행되었던 개별적인 기념행사나 홈커밍 행사는 적은 참가인원과 사관학교 학사 일정상의 제한요소 등으로 인해 취지에 걸맞게 알차고 성대하게 치루기가 어려웠다. 이에 2005년 7월 제13차년도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기존의 홈커밍 행사와 임관 10주년, 20주년, 30주년, 50주년 및 졸업생이 참여하는 개교 기념행사 등 모교관련 행사를 조정·통합하여 “공사 총동창회 홈커밍 행사”로 거행할 것을 의결하고 사관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하였다.

금년도 홈커밍 행사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약 550여명의 졸업생이 참가하였다. 특히 4기생과 그 가족은 졸업 및 임관 50주년으로 행사주체가 되었으며, 함께 주체가 되어 행사를 치른 기생은 30주년을 맞는 24기생, 20주년이 되는 34기생이었으며, 10주년이 되는 44기생은 블랙이글팀의 고 김도현 소령의 순직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참가를 취소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행사는 제1부 행사로 사관학교 의전행사의 꽃인 생도 열병 및 분열, 그리고 블랙이글의 축하비행 등이 계획되었으나 우천으로 예비 행사인 성무문화관 내 환영행사로 거행되었다. 행사는 약사 보고, 교장의 환영사, 4기생 동기회장의 경축사, 그리고 총동창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환영음악회, 박물관 견학, 생도내무반 견학 등이 이루어졌다.



홈커밍 행사를 축하해 주는 공사군악대의 연주

사관학교에서 준비한 오찬장에는 졸업생 선·후배 기수와 사관학교 지휘관 참모가 한자리에 모였으며 4기생 졸업 및 임관 50주년을 축하하는 1기생 회장의 건배로 오찬을 즐기면서 즐겁고 뜻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관학교에서 준비한 오찬장



답사하는 4기생 박병순 기생회장

제1부 행사 후 제2부 행사는 각 기생별 계획에 의거 동기생과 가족들만의 오붓한 시간으로 이어졌다. 4기생은 공군본부 및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 후 유성 온천에서 1박하였으며 익일 귀경길에 백제 무령왕릉과 서해대교 행담도를 들르는 것으로 50주년 기념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24기생은 사관학교 체력단련장에서 라운딩 후 만찬을 가졌으며, 34기생은 생도식당에서 전 생도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생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34기와 가족들

한편, 1기생은 관광버스를 준비하여 귀경길에 화성을 둘러 동기생 미망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을 찾아 위로도 해주고 저녁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귀경하였고, 운영기수인 13기생은 부부 동반으로 청주 체력단련장에서 운동과 만찬을 가진 후 귀경하는 등, 각 기생별로 알차고 뜻있는 제2부 행사를 계획하여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이날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일을 맞는 4기생 동기회는 일천만원을 모교발전기금으로 쾌척하였으며, 30주년과 20주년 졸업 및 임관 기념일을 맞은 24기생과 34기생도 소정의 모교발전기금을 기탁하여 모교를 사랑하는 선배들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1기에서 19기생은 금일봉을 모아 사관생도와 사병들의 특별 간식비로 사관학교에 기부하였고, 사관학교에서는 기념 모자를 만들어 모든 참가 회원들에게 선물하였다.

※ 다음은 “공사 교장의 환영사”, “4기생 회장의 경축사”, “총동창회장의 축사”로 이어집니다. <편집실>



환영사

존경하는 1기 사관 선배님!
그리고 선·후배 총동창회원님들
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교 방문을 성무대의
전장병 및 사관생도들과 함께 진심
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1기
사관 선배님부터 58기 신입생에 이
르기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선·후배간의 화합과 정을 나눌 수 있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
니다.



특별히, 금년에 임관 50주년을 맞이하신 4기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공군과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고귀한 희생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임관 30주년을
맞은 24기, 20주년을 맞은 34기, 그리고 10주년을 맞은 44기 동창회원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금년으로 우리 사관학교는 개교 57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인 1949년
6월, 김포의 황량한 들판에서 개교되어 이제는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이끌 국내 유수의 군사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학교가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하며, 준비해 온 선배님들과 동창회원들의 노
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재삼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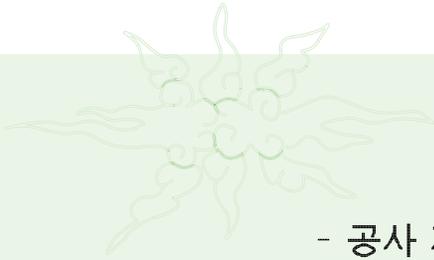
앞으로 우리 성무대의 전장병은 지난 58년의 자랑스런 역사를 교훈삼아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선진정예 공군 장교 양성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하루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모교에서의 시간을 뜻깊고 보람 있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동창회원들과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19일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중장 이 찬





경축사

- 공사 제4기 사관 졸업 및 임관 50주년 -



오늘 푸르름이 점점 더해 가면서 꽃향기가 짙어지는 오월을 맞이하여 성무인의 얼을 심어주고 가꾸어 준 공사인들의 보금자리에서 반세기의 세월을 사이에 둔 선·후배들의 뜻깊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교장 이찬 장군과 총동창회 회장 이기현 장군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신 선·후배!
멀리 해외에서 참석해 주신 가족 여러분!

친애하는 공사생도 여러분!

저희 4기 사관 일동은 오늘 모처럼 뜻깊은 자리를 맞이하여, 참으로 가슴 벅찬 감회와 더불어 무한한 감사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성무인의 보금자리 이 성무관에서 수놓은 듯이, 어깨 서로서로 맞대고 앉아 있는 사관생도 여러분의 늠름한 모습을 대하면서, 우리들은 마치 Time-Capsule을 타고 5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 넘어 진해만이 굽어보이는 천자봉 기슭에 자리한 임시가교에 입교하여 오직 젊은 패기와 의지 하나로 모든 시련과 싸워가며, 몸과 마음을 담금질했던 어려웠던 사관생도 시절의 자화상을 주마등처럼 펼쳐 올리면서 깊은 감회에 잠겨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여러 선·후배 기생들과 어우러져 모교방문의 대축제 속에서 공사인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의식을 다지는 자리가 된 점에서 더 한층 큰 의미와 보람을 담게 되었습니다.

사관생도 여러분! 그리고 만장하신 공사인 가족 여러분!

그간 우리들이 큰 격세지감을 느끼리만치 시대와 환경의 변화속에서 성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공사인들을 하나되게 엮어주고 뭉치게 하는 그 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국과 하늘”이라는 큰 틀 속에서 모든 선·후배 성무인들은 날줄이 되어 주고, 사관생도 여러분들과 영공수호 일선에서 활동하는 전 장병, 군무원에 이르기까지 씨줄이 되어서 조국 하늘 위에 이 생명이 다하도록 안보의 매김자리 위에 수를 놓았기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외쳐봅니다.

임관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4기 사관 일동은 착잡한 마음속에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모군에서 참모총장직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핵심간부로서 군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전역 후에도 여러 국가기관과 교육계, 과학연구분야, 산업경제계, 특히 항공계와 더 나아가 해외에서 까지 여러 분야와 영역에서 국력신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경제건설의 역군으로서 씨줄과 날줄의 역할을 하면서 공헌해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성취와 보람을 되새겨볼 때, 거기엔 언제나 공사인으로서 연마하고 쌓아올린 자질과 능력이 그 바탕이 되어 왔음을 감히 이야기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런히 앉아있는 모습은, “조국과 하늘”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이어질 푸른 제복의 띠(帶) Long Blue Line(Velt)을 형성하면서 그 선율을 따라 우리 공사인의 정신과 성무인의 전통은 맥맥히 이어질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하늘도, 조국도 영원할 것입니다. 조국의 하늘에 생명을 다 바쳐 담보하고 있는 사관생도 여러분! 우리 노선배들은 우리 모군의 오늘을 바라볼 때, 꿈의 공군이 실현되었음을 푹푹히 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사관생도 여러분! 저 푸른 하늘과 끝간데없는 저 우주공간을 향해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품고 있는 저 미래를 한껏 호흡하면서 이 선·후배들의 “제2의 꿈” 우주공군을 실현하는데 즐기차게, 자신있게 전진해 주십시오.

오늘을 더욱 빛나게 해주신 공사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공사인의 가족된 긍지와 보람을 가슴에 한껏 끌어안고, 더욱 행복하신 삶을 누리시기 기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동기생 전우로서 젊음을 하늘에 바치신 순직한 영령과 평생을 하늘과 조국위해 살아오시다 불행히 유명을 달리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고인들께 삼가 명복을 비오며, 그 유족들께 모든 공사인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19일

공사 4기 사관 회장 박 병 순



축 사



존경하는 선·후배 동창 여러분!

특히나 영광스러운 임관 50주년을 맞이한 존경하는 4기 선배님과 30, 20주년을 맞이한 24기, 34기 후배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좋은 날에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늘을 날겠

다'는 푸른 꿈을 안고 흥안의 청년시절에 우리 공군의 요람인 '성무대'에서 처음 만나 임관하신 후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공군과 함께 평생을 살아 오고 계신 존경하는 4기 선배님들께 충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24기, 34기 후배 여러분들의 뜻깊은 임관 30, 20주년을 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창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지난날을 잠시 되돌아보면 1기 선배님에서부터 58기 사관생도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삶의 결실과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인생의 목표는 비록 다를지라도 어디선가 무슨 무슨 '공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공사' 앞에 나온 소리는 확실하게 듣지 못했으나 우리의 모교인 공군사관학교를 외치는 소리인가 싶어 가슴 설레며, 귀를 기울이게 되는 우리는 영원한 '공사인'이며 영원한 선·후배간이며, 공군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공군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영원한 '공군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뜻 깊은 임관 기념을 축하하고 선·후배 상호간에 존경과 신뢰를 다지며 우리의 모교인 성무대에서 처음 만나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은 전우애를 나누

고 있는 우리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원 모두에게 뜻깊은 축제의 한 마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교장 이찬 장군과 장병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선·후배 동창 여러분의 건강과 앞날의 보다 큰 성취가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19일

공사 총동창회장 이 기 현



낡지않은 인생



정재식(공사 5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글 쓴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유명 사이트에 들어가서 쓰고자 하는 글 제목을 써넣고 검색을 해보면 카페글, 블로그, 웹문서, 신지식 등에 엄청나게 많은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보화된 사회에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자료가 넘쳐 흐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글을 쓸 수가 없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낡지 않은 인생이라고 야후, 네이버, 엠파스, 드림위즈 등 인터넷 대형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을 해 봤더니 다행히도 내가 쓰려고 하는 내용이 없어서 총동창회지에 짝막하게 기

고하기로 했습니다.

“낡다”라는 말을 동아새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물건이 오래되어 헐었거나 삭아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또 “낡은이”라는 낱말도 있었는데 늙은이를 얹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오래된 물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헐거나 삭는 것은 아니라 헐거나 삭지않게 지속적으로 손질하고 잘 간수하면서 활용해 나가면 헐거나 삭지 않는다고 봅니다.

놀랍게도 1970년도 중반에 현대차가 생산한 포니-1 승용차가 2006년에 고속도로 위에 질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필자가 직접 목격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1990년도에 생산된 승용차를 폐차장에서 주워온 차처럼 낡고 삭은 상태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년에 몇 번이나 새 모델로 바뀌는 골프 드라이브 채의 경우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6년 현재도 간혹 40년 전에

유행했던 감나무뿌리로 만든 홈마 브랜드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 노년 골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희가 넘은 노인들 중에 몸은 비록 늙었지만은 낡았거나 삭지 않은 인생을 누리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낡거나 삭지 않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가꾸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사고방식을 개선, 현실에 멋지게 적응하여 신선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은 생존만 하는 것이고 인간은 생존은 물론이고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삶을 뜻합니다.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동물처럼 생존하는 의미가 아니라 생계를 찾아 유지해 나가면서 가족을 기본으로 어떠한 조직의 일원으로 사회활동을 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삶의 의미를 가져야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 계획적으로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산다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되는대로 먹고 마시고 살기만 한다면 생존만 하는 동물이지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

게 하면 사람다운 삶, 그것도 낡지 않은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자기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 그룹으로 대별하면 가치지향형(指向形)의 사람과 이익추구형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느 형이 좋고 나쁨은 말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연구논문으로 다루어야 할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필자가 언급할 것은 못되고 경험적으로 보면 공직자(공무원, 군, 경찰, 교육자, 법조인 등)는 가치지향형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흔히 “요즈음 젊은 놈들 형편 없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인류가 발생한 이래 줄곧 이어져온 말이고 또 인류가 지구 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어져갈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현실을 바로보지 못한 말로 보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젊은 이들 얼마나 현실적이고 똑똑하며 기민하고 머리가 좋은지 잘 살펴보면 놀리울 정도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해도 옛날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똑같은 환경과 조건인 현실에서 숨을 쉬고 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고방식부터 현실에 맞게 바꾸지 않으면 낡은 인생이 되

고 말 것입니다. 현실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절차에도 익숙해야 하고 정보화 사회의 제반 수단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PC 사용은 기본이요 인터넷 활용도 자유자제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낯지 않은 인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새로운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의욕과 실천하는 행동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쌍둥이들 사이에도 세대차가 난다는 급변하는 현실에 잠깐 결눈

질 하다보면 금방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상실되고 실천력이 둔화되는 자연 현상을 의식적으로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낯은 인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신세대의 속담 몇 가지와 늙음과 낯음 글 중에서 몇 구절을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고 독자여러분의 낯지 않은 인생을 누리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맺습니다. ♠

1. 신세대 속담중에서

- *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걸고 올라가라.
- * 버스가 지나갔으면 택시타고 가라.
- * 젊어서 고생 늙어서 신경통, 관절통 된다
- * 웃물이 많아야 세수하기 좋다.
- * 고생 끝에 병든다.
- * 아는 길은 곧장 가라.
- * 서당 개 삼년이면 보신탕 감이다.

2. 늙음과 낯음 글에서

- * 늙음이 곧 낯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이다.
- * 늙어도 낯지 않으면 삶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 *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젊은 나이인대도 낯은 마음이 있다.
- * 누구나 태어나면 늙어가는 것, 몸은 비록 늙었지만은
마음만은 언제나 새롭게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는다

51년 전의 신문기사와 편지



이교안(공사 1기)

51년 전 나의 비행사고에 관한 신문기사(워싱턴 포스트, 아틀란타 저널 그리고 솔트레이크 텔레그램) 스크랩과 편지(주미 한국 대사관 공군무관 장지량 당시계급 대령께서 보내주신 편지) 한통을 보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색깔도 많이 변하고, 종이의 질도 자꾸 나빠져 더 이상 세월이 가기 전에 그 경위와 내용을 옛 전우와 동지들에게 알려 드리고자 하니 읽어주기 바랍니다.

I. 비행훈련과 사고경위

1954년 7월에 우리는 신예 제트 전투기 F-86F의 도입을 위하여 30명의 조종사(단장은 김성룡 당시중령, 제10대 공군참모총장

역임)를 10명씩 3개조로 나누어 미국본토에 파견하여 F-86F 전투기로의 기종전환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나는 마지막 조의 일원으로서, 텍사스(Texas) 주의 “델리오”에 있는 “라후린”(Laghlín) 공군기지에서 40시간의 T-33 비행훈련을 마쳤다. 1955년 3월 19일에 F-86F 전투기의 훈련을 위하여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시 근교에 있는 “넬리스”(Nellis) 공군기지에 도착하였다.

3월 29일 나는 특수곡에 비행임무를 부여 받고, 13:30분경 기지를 이륙하여 훈련공역인 기지동쪽 20~30마일에 있는 여름철 유원지로서 유명한 “레이크 미드”(Lake Mead) 호수 상공에서 40분간의 부여된 비행훈련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기 위하여 기수를 서쪽으로 잡고 비행하였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조금 전까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는데 어찌된 것인지 구름이 짙게 깔려 아래 지형지물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오버 캐스트”(Over Cast) 상태에서 구름 위 2,000Ft 고도로 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시각비행(VFR)으로 비행장을 찾을 수 없게 되었으니, 계기비행(IFR)으로 기지에 귀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라디오 콤파스”(Radio Compass)를 켜고, “넬리스” 공군 기지 “라디오 비컨”의 주파수를 맞추어 보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돌려도 “넬리스” 기지의 “라디오 비컨”은 나오지 않고, “라디오 콤파스”의 바늘도 움직이지 않으니, 그 동안에 경과한 시간으로 보아 기지 상공에는 충분히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비상수단을 택하여 그대로 구름을 뚫고 구름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넬리스” 비행장 동남쪽 20km 쯤에는 높이 12,000Ft의 산(Mt Charleston)이 있으니, 유의하지 않을 수 없어 구름을 뚫고 내려가 되 13,000Ft까지 하강하여도 지상이 보이지 않으면 더 내려가지 않고 구름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마음먹고, 기수를 북쪽으로 돌리고 구름속으로 하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도 13,000Ft가 되어도 아직 지상은 보이지 않고 구름속을 비행하고 있으니, 당초 생각대로라면 다시 구름 위로 상승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갈등이 생겼다. 다시 상승하여 고도를 취할 것인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계속 강하할 것인가? 결국, 상승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강하를 계속하기로 하고, 고도

2,000Ft 정도까지 내려오니 지상이 보이는데 비행기 양옆 구름 속으로 산들이 솟아있고, 나는 계곡으로 빠져나와 개활지 쪽으로 비행하고 있었다. 산 사이를 피하여 얼마동안을 비행하다 보니, 사막과 같은 불모지 허허 벌판만 보이는데, 연료잔량을 보니 1,000 파운드 정도밖에 남지 않아 기지로의 귀환은 불가능해 보였다. 비상탈출(Bail-Out)이나, 벌판에 비상착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비상탈출을 생각하고 지상을 내려다보니 사람이 사는 집 한 채, 움직이는 자동차 한 대도 보이지 않는 사막 같은 광야였다. 비상탈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넬리스” 기지에 연락할 방법도 없이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의 영화장면 같이 사막 같은 광야벌판을 혼자 헤매거나 잘못하여 부상이라도 당하면 혼자서 꼼짝 못할 것이 연상되었다.

우선 사람이나, 집이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고 비행을 계속하는데, “네바다” 주는 면적이 남한의 3배(약 29만 평방km)인데 인구는 80만명도 안되니, 50km를 가도 집 한 채 없는 황무지 벌판이 대부분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비행 중 엔진이 꺼지면 벌판 아무데나 동체착륙을 할 작정을 하고, 비행을 계속하는데 저 멀리 앞을 바라보니, 철로에 기차가 달리고 있고, 철로 주변에 건물도 몇 동 보이니, 그곳에는 틀림없이 사람이 있을 것

이므로 그 근처에 비상탈출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주변의 지형을 다시 한번 살폈다. 남북으로 뻗은 철로에 비포장도로가 직각으로 동서로 교차되어 있는데, 비포장도로의 직선부분이 공중에서 눈짐작으로 보기에 2km 정도는 될 것 같이 느껴져 잘하면 아래 보이는 비포장도로에 “랜딩기어”(Landing Gear)를 내리고 정상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비포장도로에 멧(?)있게 착륙하여 항공기도 깨끗하게 보존하고, 한국 공군조종사의 기량과 항공기를 아끼는 책임감을 미 공군 장병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망설임 없이 정상착륙을 시도하기로 결심하였다.

항공기 연료잔량을 점검하니 잘하면 3~4분은 더 비행이 가능할 것 같았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 여유가 없어 곧바로 착륙을 시도하기로 하고, 착륙지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공으로 비행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도로에서는 인부 3명이 도로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가 항공기가 저공으로 내려와 옆으로 지나가니 작업을 중지하고, 무슨 일인가 이상하다는 듯이 항공기를 쳐다만 보고 서있는 것이었다. 도로를 개방해주기를 바라는 나는 다시 복행 360도를 선회하여 같은 지점으로 다시 내려와 도로상에 있는 작업원들에게 도로를 비켜달라고 손짓을 하니, 이들은 조종

사가 자기들에게 손을 흔들어준다면 덩달아 손을 흔들며 도로를 비켜줄 생각은 안하는 것이었다. 난처하기 짝이 없게 되었다. 작업하던 도로 보수원들도 별안간에 나타난 “제트” 전투기가 그 도로에 비상착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니 그들이 협조를 안해 준다고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상황을 더 지체할 수 없어 나는 착륙을 위하여 고도를 취하고, 정상착륙 절차에 따라 착륙바퀴(Landing Gear)와 “플랩”(Flap)을 내리고(Down), 비상착륙할 비포장도로에 정대하고 착륙접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접지(Touch down) 직전에 이르렀는데도 도로상의 보수작업요원들은 피하지 않고 도로상 전방에 있으니, 계속 착륙을 시도하였다가는 작업원들과의 충돌과 인명피해는 불을 보듯 명백하니, 이제는 비행을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명피해를 없게 하는 것이 급하게 되었다.

나는 착륙을 포기하고, 마지막 순간에 항공기 기수를 좌측으로 틀고, 다시 고도를 취해보려고 엔진에 파워를 넣는 조작을 하였으나 항공기는 더 이상 비행을 계속할 힘을 잃었으며, 앞을 보니 철도를 따라 가설된 전기선과 통신선이 보여 이 선들을 위로 넘을까 아래로 빠질까 생각하는 순간 항공기는 이 전깃줄과 통신선과 충돌, 이를 절

단하고, 철도 너머 있는 창고 건물지붕에 부딪치는 “깡”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고 말았다.

II. 추락 직후의 상황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나는 문득 정신이 들어 눈을 뜨고 앞을 보니 조종사 좌석(Pilot Seat)에 앉은 채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평소에 훈련하던 대로 좌석 벨트(Seat Belt)를 풀고, 좌석에서 분리 이탈하려고 좌석을 발과 손으로 힘껏 밀었다. 분리가탈이 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되어 자세히 보니 땅위 좌석에 앉아있으니 손과 발로 밀어서 분리될 리가 없는 노릇이었다. 좌석에서 벌떡 일어나 등에 매고 있는 낙하산을 땅에 내려놓고 보니 여기가 천당인가 지옥인가 구분이 안되어 사방 주위를 살피니 조금 전 항공기로 비행하면서 보던 경치와 물체들이 그대로 보이므로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식은 돌아와 생존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데, 신체 어딘가는 부상을 당했을 것이라 생각되어, 몸

을 손부터 서서히 움직여 발과 허리, 목까지 도수체조하듯이 꾸부렸다 폼다 돌리기를 하나하나 해보았다. 외형이나 신체동작 운동상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단지 왼쪽 팔꿈치 부근과 좌측발 무릎 부근에 찰과상으로 인한 약간의 출혈이 있을 뿐이었다. 주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 항공기 충돌로 지붕일부가 부서진 건물(철도회사 창고용 건물)이 약 100m쯤 앞에 보였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 주거용 개인주택 4~5동이 있었다.

내가 조종하고 온 항공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대파되어 그 일대에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다.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나는 항공기가 철도 너머에 있는 창고용 건물지붕에 충돌하는 순간부터 항공기가 지상에 충돌 파괴되기 직전 사이의 찰나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인지 조종사 좌석 비상탈출 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무의식 중임에도 항공기에서 사출(eject) 분리되어 좌석에 앉은 채로 전방으로 240Ft를 날아가 지상에 착지하여 큰 부상 없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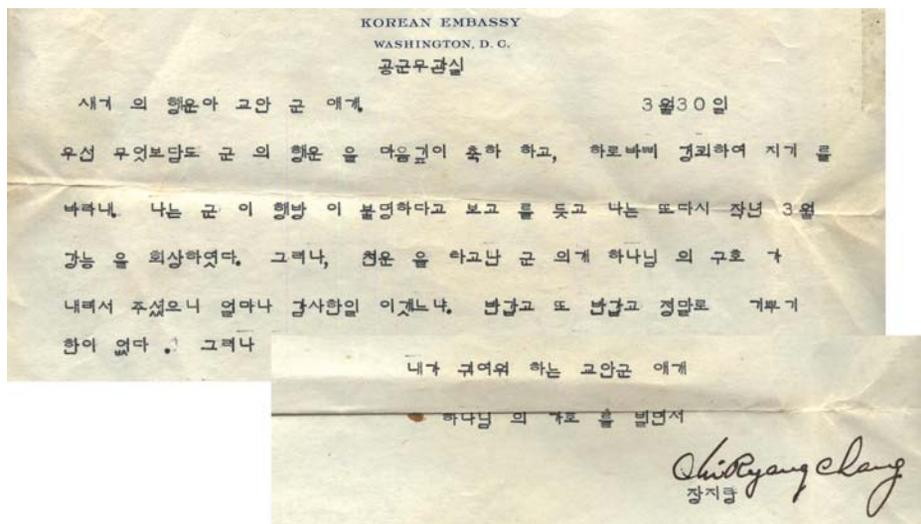
III. UP 통신과 신문보도

“넬리스” 공군기지에 돌아와 기지병원에서 다음날 아침에 배달된 신문을 보니, 나의 사고기사가 현장사진과 함께 크게 게재되어 있었다(사고지점에서 생환 후 주민의 도움으로

소속기지에 연락되고, 무사히 귀환하게 된 경위는 지면관계로 생략함. 신문기사의 관심사항은, 첫째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훈련 중인 한국 공군조종사가 더 이상 비행이 불가능한 “제트” 전투기를 조종하여, 도로에 비상착륙하려다 도로상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자기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방향을 바꿈으로써 도로상에서 일하던 인부들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용감성(Heroic Action)과 둘째는 항공기가 철로 변의 전선과 통신선을 절단하고, 창고건물 지붕을 들이받은 후, 땅에 추락하기 직전 조종사 좌석 비상탈출장치가 작동되어 조종사는 항공기와 분리, 전방으로 240Ft(약 75m)

날아가 부상없이 기적적으로 생환한 항공역사상 보기 드문 극적인(Spectacular) 비행 사고라는 것이었다. 이 기사는 UP통신으로 전 미국과 한국에 즉시 타전되어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미국 내의 주요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한국에서도 다음날 신문에 보도되었다.

특히,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의 공군부관이신 장지량 대령께서 별첨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기사 스크랩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역사자료가 될까하여 감히 공개 소개하는 바입니다.♣





변호사와 미녀

한 미녀가 변호사와 나란히 비행기에 탔다. 그녀에게 반한 변호사가 그녀에게 재미 있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미녀는 피곤한 나머지 공손히 거절했으나, 변호사는 정말 재미있고 쉬운 게임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그녀를 괴롭혔다.

“이 게임 정말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냥 질문을 해서 대답을 못하면 벌칙으로 5볼을 주는 거죠.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녀는 다시 공손히 거절하고 고개를 돌려 잠을 청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다.

“좋아요, 좋아 당신이 대답을 못하면 5볼을 나한테 주고, 내가 대답을 못하면, 500볼을 주죠, 어때요?”

이 남자의 끈질김에 귀찮음을 느낀 미녀는 500볼이라는 말에 찬성하고 말했다. 변호사가 첫 질문을 던졌다.

“달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바로 지갑에서 5볼을 꺼내 주었다. 그러곤 물었다.

“언덕을 오를 때는 다리가 세 개이고, 언덕을 내려 올 때는 다리가 네 개인 것이 뭐죠?”

의외의 어려운 질문에 당황한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뒤졌다. 그러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는 가능한 모든 동료에게 전화를 했고, 이메일을 동료에게 마구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답을 찾지 못했다. 한 시간쯤 뒤 결국 그는 잠들어 있던 미녀를 깨웠다. 그리고 그녀에게 조용히 500볼을 꺼내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고맙다는 한 마디를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잠시 후 변호사가 그녀를 깨워 물었다.

“근데 답이 뭐죠?”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5볼을 꺼내 변호사에게 주었다. 그러곤, 다시 잠을 청했다.♣

(편집실)

못 다한 하늘사랑



윤석문(공사 8기)

하늘만 바라보고 걷는 자(者), 돌부리에 발이 채이고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땅만 내려다보고 걷는 자,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헤맨다.

전자(前者)도 후자(後者)도 아닌 채 긴 긴 세월을 다 보냈다. 인생 칠십 고래회라는 말이 퇴색해 버린지 오래되었지만 나이 칠십을 맞은 요즈음 종종 새벽잠을 설친다.

나는 하늘에 살면서 청춘과 인생 황금기를 다 보냈다. 지난 세월을 다시 살 용의가 있는 가라고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 대답할 것인가?

나는 종종 공군체력단련장을 찾아가 운동을 한다. 그때마다 인근 활주로에서 전투기 편대가 지축을 뒤흔들며 치솟는다. 심금을 울리는 폭음소리에 넋을 잃고 전투기 편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종간을 움켜잡고 높이 그리고 멀리 비행기와 함께 하늘 속으로 사라지는 듯하다.

1956년 3월, 교복을 입은 채, 경남 진해에 있던 공군사관학교 정문을 들어서게 되었고 그 후 어느 날 훈육관의 인솔로 이웃 김해에 있던 공군비행학교에서 하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생도들에게 장차 하늘에 청춘을 불사르고, 황금기를 다 바쳐야 할 하늘과의 만남이란 체험을 맛 보여주기 위함에서였다. 나는 비행교관과의 동승으로 난생 처음 하늘에 올랐다. 두렵고 짜릿했다.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김해평야는 잘 정지되어 있었고 들판에 가득찬 비닐하우스는 하얀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였다. 과연 장관이었다.

그 후 나는 휴전 직후 임시 교사였던 진해

공군사관학교에서 3년 여의 생활을 접고 서울 대방동에 새로 마련된 교사로 올라와 1960년 3월,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비행훈련을 앞두고 부임길에 고향에 계신 아버님을 찾아뵈었다.

그때 아버님은 「견현사재(見賢思齋) 건불선내자성(見不善內自省) 선악개오사(善惡皆吾師)」(착하고 옳은 일을 보면 스스로 본받을 것을 생각하고, 착하지 못하고 부정한 일을 볼 때 스스로 반성만 한다면 선이나 악이나 모두 선생이 된다)라는 금언을 성현의 말씀이니 잘 명심하라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아마 공군장교로서 또 조종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자랑스럽기만 한 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었으리라. 그 때 그 말씀이 지금껏 나의 좌우명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값진 유산(遺産)이었다는 것을 나이 칠십이 되어서야 깨닫는다.

1960년 4월, 본격적으로 비행훈련이 시작되었다. 초등, 중등과정은 경남 사천에서, 고등과정은 대구에서 마치고 나는 드디어 전투 조종사의 상징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게 되었고 주간 전투기인 F-86F로 기종전환 후, 전투비행대대에 첫 부임한 것은 1962년 8월, 이듬해 4월에는 전천후 요격기인 F-

86D로 다시 기종을 전환함으로써 밤하늘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70년도 전후에는 북한 간첩선의 해상침투가 빈번하자 AT-33까지 해상 대간첩 전술이 개발되어 야간작전에 투입된다. 이런 인연으로 밤하늘의 별들과 친숙하게 되었고 또 밤하늘을 좋아하게 되었다.

전역 후, 대한항공 제주 기초비행훈련원 비행교관으로 갔다. 훈련공간이 좁은 제주여서 해상비행이 많았으며 여수 울산까지의 항법훈련으로 자연히 남해바다를 넘나들어야 했다. 항공촬영이 주업(主業)인 삼미항공 시절에는 산림청의 수주로 전국의 산하(山河) 상공을 누비듯 비행했고, 항만청의 수주로는 동서 남해안의 항만시설들을 모두 찾아 비행했으며, 멀리 울릉도에 있는 항만시설까지 찾아 비행했다. 그래서 하늘, 산과 강, 바다까지를 좋아하게 되었다.

긴긴 하늘에서의 생활이었다. 눈을 감으면, 가끔은 꿈속에서까지 끝없이 펼쳐진 구름바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망망한 삼면의 푸른 바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의 아름다운 산과 하천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친다.

하늘과 인연을 맺고 하늘을 좋아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6대조가 되시는 한 할아버지의 염원과 그분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어서였다.' 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비행생활을 마친 훨씬 뒤의 일이다.

6대조가 되시는 달규(撻圭) 할아버지께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 삼대(三代)가 효자정려의 은전을 하사받고 동몽교관 및 좌승지라는 관직을 받으시어 이웃과 사회에 삼대극효(三代極孝)의 집안이라는 명성을 떨치게 하신 분으로만 나는 알고 있었다.

2000년 4월 8일 '조선시대 우리도 하늘을 날았다(KBS 역사스페셜)' 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조선(朝鮮) 철종(1831-1863) 때

고증학자 이규경(李圭景) 선생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비거변증설(飛車辨證說)' 을 근거로 하여 건국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 '비거연구팀' 이 구성됐고,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나마 고전자료의 서술 내용만을 토대로, 추정되는 비거를 설계/제작하여 한사람을 태우고 20m 정도의 절벽에서 약 74m의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비거변증설의 역사성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인즉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영남의 어느 고성(古城)(지금의 진주)이 왜군에 포위당했을 때 비거를 이용하여 성주(城主)를 탈출시켰다는 기록과 조선 후기 호서



건국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비거연구팀이 설계/제작에 성공하여 하늘을 나는 모습. 1/2의 크기로 축소 제작된 모형비거는 현재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음.

지방(지금의 충남 논산시 노성)의 윤달규라는 사람은 기물(器物)을 잘 만드는 재주가 있어 비거를 만들었다 하나 비밀로 하여 일반에게는 보여주지 않아서 그에 관한 자세한 것은 모른다.’ 라는 기록이다.

조선 후기 호서 땅 ‘윤달규’라는 사람은 바로 내게 6대조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시험비행에 성공한 비거는 1/2로 축소 제작되어 모형비거가 모교인 공군사관학교 박물관 2층 천장에 전시되어 있다하여 찾아가 봤다. 전시된 모형비거를 처음보는 나는 감개 무량만 했다. 다빈치의 ‘날개치는 비행기’의 꿈은 1903년 12월 17일(목요일) 10시 30분, Wright 형제가 마침내 동력비행에 성공을 했고 오늘날 눈부신 항공기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우리나라에서도 훨씬 이전부터 그런 노력이 있었다니.....!

할아버지께서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꿈을 펼치시려 던 곳(논산시 노성/지금의 광석 땅)에 종중(宗中) 추모원(납골당)을 조성하고 종조이신 7대조의 아들(달규/撻圭), 손자(풍진/豐鎭), 증손자(자경/滋卿) 3분의 삼대효자를

한 곳에 모셨다. 비록 군(軍)은 다르지만 육군항공학교의 비행훈련 장주 내에 추모원이 위치하여, 비행기 소리와 함께 날이 밝고, 비행기 소리와 함께 날이 저물고 있다. 우연이라고만은 여기고 싶지가 않다.

좀 더 일찍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이 못내 아쉽다. 종중행사 외에도 나는 가끔 추모원을 찾는다. 비행훈련 중인 항공기의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파란 하늘을 바라보노라면 할아버지의 모습이 파란 하늘에 나타나 빙그레 웃으신다. 전투기 편대가 폭음을 내며 하늘을 가른다. 내 눈과 귀는 전투기 편대의 폭음과 자취가 멀리 멀리 사라질 때까지 뒤를 쫓는다.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더불어 살아라.」하신 할아버지의 그 말씀(宗訓)을 되뇌인다. 그리고 나는 멀지 않은 훗날 할아버지와 함께 낮에는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를 들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밤에는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리라고 마음 다잡는다. ♠

21세기 원시인 : 우리집 “머슴각하”



윤여훈(공사 8기 서진태 회원 부인)

문명의 기반설비만 가지고 원시인처럼 살 수 있는 집을 설계해 달라고 했다. 설계사는 재미있는 화두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관심은 별로 없는 말투로 어떤 집이 그런 집이냐고 물었다. “안과 밖이 구별 안되는 집요.” 하니 그는 순간 진지해 진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와 나는 대화는 점점 재미있어졌지만 점점 안된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밖에서 사는 것처럼 안에서 살겠다는 발상은 역시 실험적인 요소가 많았고 나의 발상대로 짓는다는 것은 건축비를 예상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래서 슷제 그만두기로 했다. 세계 유명 건축가들의 책을

읽으며 오랫동안 정리해 온 나의 문명의 원시인 주택 꿈은 좋은 시 한편 읽고 허공을 바라보았던 때 같은 추억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 형편은 일종의 역심(逆心)반응이랄까, 그 어떤 예쁜 집의 설계 모델도 거부하게 했다.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창고 집(barn house)을 지었다. 지어 놓고 보니 근래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전원주택은 고사하고 70년대의 시골동네 새마을 주택만큼도 예쁘지 않았다.

SUV차로 마을에서부터 2.5km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산골에 지난날의 원주민 오막살이 세 채가 있던 자리를 적당히 정리하고 지어 놓으니 미처 헐어내지 못한 오막살이 한 채가 옆에 흉물처럼 그대로 있었고 흙더미와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다. 허물어지고 일그러진 지표면, 사람이 상처낸 땅이면 꼭 번식하는 심란스러운 잡초들... 그 가운데 우리 창고 집은 순한 꿈 한 마리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이사 들어오는 우리 부부를 멍쩍게 바라보며 웃었다.

나는 그런 상태가 오히려 신이 났다. 내 마음은 역시 역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심란한 곳이 어떤 형태의 아름다움으로 변할까하는 호기심과 자신감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움직이는 남편의 눈치가 보인다. 나는 아름다움은 무한이라는 말로 그를 위로하면서 화려하고 멋있는 것보다 평범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향한 창조를 시작하자 했다.

공간의 아름다움은 깨끗하면 벌써 시작된다. 그래서 내 남편의 긴 노동의 역사는 청소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앞뒤 마당의 지형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공간을 향해 남편은 감히 혼자서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랫마을에서 일꾼을 사서 간섭만 하며 서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써본 적도 없는 곡괭이, 삽, 손수레... 노동에 필요한 많은 연장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스스로 자신을 가르치며 일을 하는 것이다. 위아래 마당의 지면형성, 여기저기 작은 옹벽 쌓기, 모든 곳에 층계, 통로, 돌담, 나무 담, 선반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온갖 아름다운 꽃들과 평화스러운 잔디가 깔려 있는 마당에 정원 조성의 필수조건인 배수구

를 여러 가지 크기로 놓는 일을 혼자 다한 것이다. 나는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화단에 꽃부터 심으며 집 안팎에 피어있는 야생화들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남편은 그렇게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의 머슴이라고 말한다. 내 머슴이라는 남편모시는 일이 어떨 것인가 누구라도 상상이 될 것이다. 나의 삶은 “종의 종노릇”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완전히 내 머슴의 종노릇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머슴각하”라고 부른다.

그런데, 최고지식인이 어떻게 일차 노동에 그토록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의 원시인 기질 때문이다. 원시인 기질이란 말은 문명은 그에게 지식을 줄 뿐 그가 타고난 순수한 지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은 두뇌활동을 위해서 육신을 쓰거나 육체노동을 위해서 머리를 쓰거나 똑 같은 힘을 발휘한다. 그런 지성은 혁명적인 변화 앞에서 과거의 타성에 머물거리지 않고 돌연변이 같은 진화를 한다.

한편 나는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는 대상으로 놓고 이 조건을 정원을 가꾸는 능력으로 향유하면서 공간을 끊임없이 창조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연출하는 멋만 부린다. 공간연출에만 열중하면서 자리를 잘못 잡은 나무를

잘라 버리지는 나의 요청에 머슴각하는 필쩍
 된다. 멀쩡하게 잘 자란 것을 잘라버릴 수 없
 다고 높이가 3m나 되는 나무들을 혼자서 줄
 줄이 뽑아 옮기면서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주저앉으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힘든 일을 했
 는지 의식도 못한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흙을 퍼
 가서 산허리 전체가 상처를 입고 있는 뒷산
 은 경사가 급해서 올라갈 수도 없는데 그 산
 허리에 사다리를 대 놓고 오르내리며 머슴각
 하는 온갖 나무와 꽃을 심는다. 산소에 왔다
 가 그 모양을 본 산주인이 왜 남의 산에 나무
 를 심느냐고 시비조로 말을 던졌다. 머슴각
 하는 순간 할 말을 못 찾고 그 사람을 어처구
 니없다는 듯이 쳐다본다. 우리에게는 그 산
 이 치유해야 되는 자연의 상처였지만 산 주
 인에게는 소유에 불과한 것이다. 문명은 이
 렇게 사람에게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무엇보
 다 소유의식만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유욕이 일으키는 병의 온갖 증세를 정치,
 경제, 사회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권에서 매
 일 목격하고는 있지만 상처 입은 자기 산에



심어지는 나무를 좋아할 줄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의 병까지 보는 것은 기가 막힌다.

참으로 문명이 아깝다. 문명의 기술 덕분에
 으로 이런 외진 생활이 오히려 온 세상을 한
 꺼번에 볼 수 있게 하다 보니 그런 바깥세상
 을 바라보며 자주 슬퍼지고는 한다. “원시에
 는 야만이 없다. 야만은 문명이 만든 것이
 다.”라는 크리슈나무르티의 말을 확인하게
 만든다. 문명의 편리함을 모두 향유하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소박하고 순수하게 사는 것
 이 바로 문명의 야만성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나는 내 머슴각하에게 감사하면
 서 박수를 보낸다. ♠

필자 소개

고려대학교 정외과 졸업(1956학번)
 대한적십자사 국제부장
 9-10대 국회의원
 김영삼 대통령통일고문회의 고문



맥주 맛있게 먹는 법

맥주가 공장의 발효 탱크 안에서 숙성되고 있는 동안은 시간이 맛을 내어주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출하되고 난 후부터 시간은 맥주에게 적이 되고 만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맥주의 신선한 맛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보관된 맥주는 금방 만들어졌을 때와 같은 상쾌한 목넘김과 신선한 향이 없고 색깔도 진해진다. 갈색이 되는 것은 맥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멜라노이딘(melanoidine)이라는 색소 성분이 공기와 혼합하여 산화를 일으켜 색이 진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맥주의 제 맛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병맥주의 경우, 보관 상태가 양호하면 1년까지는 맛있게 마실 수 있다. 맥주 상표에는 제조일이 표시되어 있어 이것을 참조하면 좋다.

맥주는 시원하게 마셔야 제 맛을 즐길 수 있다.

미지근하면 거품이 많이 생기고 쓴 맛이 강해진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차게 하면 거품도 잘 일지 않고, 미각을 마비시켜 싱겁게 느껴진다. 맥주의 제 맛을 내는 온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쾌한 맛을 내는 맥주의 적정 온도는 여름에는 4~8℃, 겨울에는 10~14℃, 봄과 가을에는 6~10℃이다. 대부분의 애주가들은 시원한 맥주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무 온도가 낮으면 맥주 고유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시원하고 상쾌한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마시기 3~4시간 전에 4~10℃의 냉장실에 넣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급히 시원한 맥주가 필요할 때는 커다란 통에 물과 얼음을 채우고 맥주를 담가 냉각시키는 것이 요령이다.

맥주를 맛있게 마시려면 글라스에도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중요한 것은 글라스가 깨끗해야 한다. 맥주의 맛은 글라스가 깨끗한 정도에 비례한다고 할 정도이다. 글라스에 기름기와 더러움 등이 남아있으면 거품이 잘 생기



지 않는다. 거품의 표면 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라스는 세제로 씻고 나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헹구는 것이 좋다. 미량이라도 세제가 남아 있으면 맥주의 꽃이라고도 일컫는 거품이 꺼져 버린다. 그리고 나서 기름기 없는 곳에 얹어 놓아 물기가 자연이 마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글라스도 차게 해 두는 것이 좋다. 따라놓은 맥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글라스를 냉장고에 넣어 두면 꺼낼 때 서리가 생긴다. 이것을 '프로스트' 글라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맥주를 따라 마시면 그 맛은 더욱 시원하다.

맥주의 황금색과 순백의 거품과의 대비는 맛 뿐 아니라 시각의 즐거움을 더해 준다.

거품은 탄산가스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뚜껑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맥주가 공기에 닿아 산화하여 맛이 적어지는 것을 막아 주는 역할도 한다. 그러므로 맥주의 시원하고 상쾌한 맛과 씹살하고 짜릿한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거품이 꺼지기 전에 거품과 함께 마시는 것이 좋으며, 훌쩍훌쩍 마시기보다는 목으로 시원스럽게 마시는 것이 좋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마시던 잔을 다 비운 다음에 다시 따라 마시는 것이 좋다. 첨잔은 이미 탄산가스가 빠진 맥주에 신선한 맥주를 섞는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량씩 남은 여러 병의 맥주를 한 병에 몰아서 마시는 방법도 김빠진 맥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거품이 잘 나도록 따르려면 글라스를 살짝 기울였다가 바로 세우면서 맥주를 따르면 2~3cm 정도의 거품이 보기 좋게 만들어진다. ♠

(편집실)

50년 전과 오늘의 나



김경오(대한민국 항공회 총재)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산 다 우~
 허허 별관 김포비행장 안에 두 개의 컨테이너는 여자 항공대 내무반이다. 군데군데 늙은 밤나무는 세차게 불어오는 영하 16도의 매서운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졌다. 밤 12시~1시까지 불침번을 맡은 나는 미군에서 보급받은 군복(남성위주 군복이라 여자가 입으면 어깨는 팔꿈치, 소매는 무릎까지 늘어졌다)을 입고 구식 총을 어깨 위에 메고서 불침번을 서다 눈보라 속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아침 5시, 기상나팔 소리에 눈을 떴지만 온 몸은 얼었고 어깨 위의 총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요지부동이였다. 야간순찰을 돌던 주변사령장교가 이 사실을

대장에게 보고하여 따귀 8번과 하루 금식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그래도 동료는 눈치껏 주먹밥을 넣어주어 꼬르륵 하는 소리는 면하였다(이 친구는 현재 경원대학 이사장이며 우리나라 소비자 연맹을 창설한 여성 리더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건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된 한국을 세계만방에 알리고자 모안을 모색 중 빠른 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를 그린 비행기를 한국 조종사가 몰고 세계를 다니며 홍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지내던 시절, 2차대전 당시 여자 폭격기 조종사를 떠올리며 기왕이면 여자조종사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안호상(초대 문교부장관)과 신성모(초대 국방부장관) 씨를 경무대로 불러 즉시 여자조종사 15명을 만드는데, 방법은 공군에 입대시켜 비행훈련을 받도록 지시했다.

여기서 참으로 웃지 못할 넌센스 한 토막

“대통령 각하~! 여자 비행사를 아직 본적이 없어 여쭙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이 말은 안호상 장관께 직접 먼 훗날 들었다.)”

대통령의 답변은 이러했다.

“첫째, 우선적으로 이공계 학과에서 성적이 뛰어나고, 둘째로 신체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예뻐야 합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즉시 공군에 지시하고 문교부장관은 전국교육감을 통하여 학교에 지시가 떨어지도록 했다 한다.

1949년 2월 5~7일

서울 화신백화점 앞 종각 옆 한청빌딩에 전국 여고생 8,200명이 모였다. 선발시험은 치열했고 전국 여자고등학교마다 자기 학교 학생이 뽑히기를 원했다. 드디어 선발된 15명은 공사 1기생과 함께 트럭에 타고 1949년 2월 15일 김포비행장 공군기지에 입대했다. 쌍갈래 긴 머리가 순식간에 하이칼라로 변했고 여고생 교복이 군복으로 바뀌는 운명의 순간, 우리 15명은 영-영 울고 말았다.

비행사가 된다는 큰 꿈을 보라~!

우선 남장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이 슬펐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 순간, 군인정신 주

입 교육과 군사훈련이 숨쉴 틈도 없이 강행되었고 하루 5시간 학과공부(군사, 정비, 통신, 기상, 역학)와 3시간 군사훈련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매일 아침 김포에서 양화대교까지 구보~, 딱 죽을 것 같은 순간의 연속, 낙오하면 대장으로부터 무참한 기압을 받아야 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하필이면 뺨을 양쪽으로 치는데 고막이 터지는 것은 보통, 온종일 얼굴이 텅텅 부어 있었다.

3개월이 지나 경무대(지금의 청와대)로 이승만 대통령께 신고하러 갔는데, 대통령께서는 「여러분은 앞으로 이 나라의 여자 비행사로서 대한민국을 빛내야 합니다.」라고 우리를 격려했다. ‘한국에서 여군이 최초로 공군에 탄생되었다.’ 하면서 우리들 모습을 대한뉴스에서는 자주 방송하였다.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우리들 15명은 참으로 대한민국을 빛내기에 충분한 자원들이었다.

1952년 5월 12일

대구 동명비행장에서 수만명의 인파 속에서 L-19기 단독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그 날로부터 한국 최초의 여자조종사라는 대명사가 오늘날까지 나를 찬란하게 빛내주고 있다.

1957년 나는 공군 대위로 예편한 후 도미 유학을 마치고 1963년 금의환향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 항공회(사단법인)에서 민간항공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 항공회는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빠르게 발전하여 50만 회원을 가진 단체(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초경량, 여성항공, 동력패러글라이더, 모형항공 등)로 성장하였으며 각종 세계대회에서 여러번 입상은 물론 그 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있다.

1988년 내가 한국여성단체협회장(1987-1994)으로 재직할 때 남녀고용 평등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2천3백만 여성의 대변자로 수많은 여성 지위고취에 관한 일들을 성공시켰다. “암탉이 울어야 알을 잘 낳는다!”라는 나의 신념에 따라 오늘날 공군사관학교에 여성도 입교뿐만 아니라 육·해·해병대·경찰 등 어느 분야도 빠짐없이 남녀가 평등해진 것은 나의 큰 보람이자 성공이 아닐 수 없다.

필자소개

예비역 공군대위

1967년 한·일 여류비행사 친선교환 방문비행(서울-도쿄-서울)

현 대한민국 항공회 총재 및 국제항공연맹 부총재

1965년 3월 15일 나는 만인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여 이듬해 첫 딸을 낳았다. 1970년에 둘째 딸을 얻었고 이 두 딸이 예쁘고 훌륭하게 커서 우리 부부를 행복하게 해준다. 엄마보다 더 유명해진 큰 딸인 이보영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로 발표될 때마다 나의 기분은 반짝거린다. 특히 2004년 둘째 딸이 일등 석사(UCLA) 학위를 받았고, 둘째 사위가 항공공학박사(USC) 학위를 받았을 때에는 행복의 절정이었다.

지금도 나는 새벽 3시에 눈을 뜬다.

제일 먼저 얼굴 주름제거와 근육 탄력이며, 두번째는 팔등신 유지운동, 그리고 나서 그날 스케줄에 따라 스피드 점검과 만나는 대상에 따라 대화준비, 옷 손질, 그 후 딸이 강의하는 영어 생방송을 듣는다. 마지막 코스는 남편의 아침 준비 끝으로 MEMO를 쓴다.

Dear my roommate,

I wish you have beautiful day.

- Love 경오 - ♠

어머니 냄새



이봉길(공사 18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가진 기억은 어릴 적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비릿한 젓 냄새와 함께 내 코에 익숙한 어머니의 체취 - 어머니 냄새이다. 젓을 떼기 시작할 무렵, 젓 달라고 칭얼대는 나를 어머니는 그저 꼭 안아만 주셨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오랫동안 떨어지기를 싫어했다고 한다. 아마 투정을 부리다가 어머니의 체취에 흠뻑 취하며 그 품에 안겨 잠들곤 했을 것이다.

두 번째 냄새의 기억은 구수한 된장국 냄새이다. 이른 아침 잠자리에 누운 채 내 코를 감싸는 된장국 냄새에 잠을 깨곤 했다. 잠시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노라면 안방에서 부엌으로 난 쪽문을 조금 열고 “해가 중천에 떴다. 그만 일어나거라.”라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음성과 함께 기억되는 냄새이다.

사람들은 대개가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자라는가보다. 직장 동료 중 캐나다 친구와 커피를 마실 때 들은 이야기다. 그 친구도 어린 시절 아침에 계단을 타고 이층으로 올라오는 구수한 커피 냄새에 잠을 깨곤 하였다고 한다. 잠시 침대에 누운 채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노라면 삐걱거리는 나무계단 밟는 소리가 나고 방문이 열리면서 “또 늦잠 자는구나, 그만 내려오려무나.”라고 하시는 어머니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늘 마시는 커피지만 집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릴적 그 커피향이 생각나면서 어머니와 고향집이 그리워진다고 했다.

내가 어머니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어머니의 향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

다. 놀다가 침대 위에 쓰러져 깜박 잠들었던 아이들은 잠결에 이불을 덮어주고 가시는 어머니에게서 익숙한 향수 냄새를 맡으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든다고들 한다. 부모 자식간인데 아무려면 몸 냄새를 감추려고 뿌리는 향수인데 살갑기가 우리네 어머니 몸에 밴 체취만 하겠나 싶다.

나도 직업상 외국 출장이 잦았는데 호텔에서 먹는 아침식사는 커피나 홍차와 함께 딱딱한 바게트나 토스트를 몇 쪽 먹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 날이면 위장이 약한 나는 자주 체하거나 속이 쓰려서 종일 불편하곤 하였다. 그럴 때면 언제나 따뜻한 된장국이나 된장찌개 생각이 간절했다. 다행히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한국식당이 있어서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었는데 수저를 들기도 전에 냄새만 맡아도 부대끼던 속이 다 풀리는 듯 했다. 아마도 된장 냄새에서 어머니 냄새, 고향 냄새가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요즘 서양에 사는 우리 이민 2세들의 고국에 대한 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고국에 대한 기억이나 민족에 대한 정서가 없기 때문이란다. 물론 그 나라의 언어와 생활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들의 습속에 익숙해져있는 탓이겠지만, 짐작컨대 모

유보다 우유를 먹고 자라고 김치나 나물 대신 샐러드를 먹으면서 된장, 간장이 아닌 서양소스에 길들여진 입맛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어디 그들 뿐이겠는가.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도시에서 모유를 모르고 자라면서 고향집과 어머니에 대한 정서가 예전 같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마음의 뿌리 같은 전통음식과 어머니 냄새에 대한 기억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마치 동물이 혼적으로 남겨놓은 자신의 냄새를 잃어버리고 방향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부평초처럼 마음이 머무를 곳을 갖지 못하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연세가 드신 어머니한테서는 또 다른 어머니 냄새가 난다고들 한다. 어른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알게 되는 어머니 냄새는 어떤 것일까? 자라면서 익숙했던 그것과는 다른 노년의 어머니 체취가 정겹게 느껴진다는데, 나는 그런 어머니를 알지 못한다. 아직 철들기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여지껏 나만이 아는 어릴 적 그 냄새로만 기억하고 그리워해온 나에게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분들은 백만장자도 부럽지 않는 부자로 보인다.

냄새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기억하고 또 잊어버리면서 산다는데 나의 어릴 적 냄새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진다는 망각곡선 이론도 맞지 않는가 보다. 중년이 된 지금도 고향집, 어머니 생각과 함께 늘 그림고 그 향미가 흐려지지 않는다. 어쩌면 '마음 속의 밀랍(蜜蠟)에 경험이 각인되는 것이 기억이다.' 라고 한 플라톤의 말처럼 내 어릴 적 후각의 경험은 내 속 어딘가에 금속활자처럼 또렷이 새겨져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냄새의 기억은 어머니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텃줄처럼 생명의 띠로 맺어진 것 같기도 하다.

나의 경우 이러한 냄새의 기억은 일찍이 집을 떠나 멀리 떨어져 살면서 내내 모성과

고향 그리고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조국에 대한 향수와 애정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할머니, 어머니의 손맛으로 전해오는 된장 냄새와 어머니의 체취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들 속에 잠재의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난 번 형제들과 어머니 산소를 찾았을 때 일이 생각난다. 참배를 하면서 잔디에 이마를 대는 순간 늘 익숙했던 어머니의 냄새가 내 코를 찡하게 만들었다. 재배를 마치고 나서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는 나를 모두들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정말 어머니 냄새가 났었다니까!”라고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파란 페를 곱게 쓰고 있는 봉분으로 눈길을 돌렸다. 역시 어머니 냄새다. ♣



뱃사공과 철학자

어느 철학자가 나룻배를 탔다. 그가 뱃사공에게 철학을 배웠냐고 물었다. 그러자 뱃사공이 고개를 저었다.

“한심한 사람이군. 자넌 인생의 3분의 2를 헛살았구먼. 그렇다면 자넌, 문학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나?”

역시 뱃사공이 배우지 않았다고 하자, 철학자는 다시 뱃사공에게 인생의 3분의 2를 헛살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 절반쯤을 건너갈 무렵, 갑자기 배에 물이 들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뱃사공이 그 철학자에게 헤엄을 배웠냐고 물었다. 철학자는 헤엄을 못 배웠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인생 전체를 헛살았군요!” ♣

(편집실)

암과 함께 생활하면서



조영기(공사 22기)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창회지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점 먼저 사죄드립니다. 저는 2004년 9월에 위암수술을 받고 6회의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먹는 약으로 암과 투병하고 있습니다. 동문 중에는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분들 중에도 암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공사 운항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사는 가능한 채식, 생선, 된장, 청국장 위주로 하며 담배는 피우지 않고, 자리가 되면 가끔 음주는 하는 습관으로 제 스스로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다고 생

각했고, 회사 신체검사에서도 상위 10% 내에 드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증상을 느낀 것은 2004년 8월 초부터 새벽 3~4시경에 위에 통증이 있어 깨어나길 자주했으며, 8월 말 경에는 오랜만에 선후배 모임에서 술을 좀 과하게 마셨더니 다음날 아침 상복부가 볼록하게 부어올라 평소 가족이 다니던 방사선과에서 위 조영술 검사를 해 본 결과 위암으로 생각되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내시경으로 검사를 해 보니 위의 상부에 암조직이 발견되어 그 해 9월에 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2~3년 전부터 식사량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였고 발견될 당시는 전에 비해 1/2~2/3 정도만 식사를 하여도 포만감을 느꼈습니다. 식사량은 줄어도 체중은 조금씩 증가하여 수술 당시에는 생후 최고의 체중이었습니다. 이를 나이가 들어가는 현상

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암이란 건강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발병하는 것으로 우리 몸은 약 6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매일 1천여 억 개의 세포가 생기고 없어졌다 하는데 그중 3,000여개 이상이 변형을 일으켜 암세포로 변이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몸속의 면역기능이 변이세포를 방어하기 때문에 변이된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어기능이 작동하므로 면역기능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면 암에 걸리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인체의 면역기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수술 후 회복도 힘들지만 항암치료(항암주사제)는 그보다 더욱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병간호하는 가족도 환자 못지않게 힘들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연 1회 각종 암검사를 부부가 꼭 하도록 하십시오. 위장은 다소 힘들더라도 내시경으로 해야만 초기를 발견할 수 있고, 초기에만 발견되면 수술도 간단한 복강경 또는 Cyber

Knife 방법으로 하면 후유증이 적어서 회복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매우 빠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빨리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발병 이후 책과 마스크를 통해 알게 된 암도 예방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참고로 하시어 저와 같은 일이 회원님들의 가정에 없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 항암에 좋은 음식

- Color, 과일, 특히 토마토(익혀서 올리브유에 드시면 7배 효과)
- 유황성분식품 : 마늘, 양파, 파, 부추, 양배추/상추, 브로콜리, 썬바귀
- 홍삼
- 된장, 청국장

둘째 : 건강에 나쁜 음식

- 설탕
- 백미
- 염분
- 인스턴트 식품

셋째 :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

- 一無 : 禁煙
- 二小 : 小食, 小酒
- 三多 : 多動, 多休, 多接(많은 사람과 접촉)
- 물을 많이 마셔라(하루 8잔 이상).
- 많이 웃어라(소리 내어서).
- 긍정적인 생활을 하라.
- JTP생활(Joyful, Tanks, Pray : 즐겁게, 감사, 기도)

그리고 책 한권을 소개합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취해야 할 50가지 필수 수칙” 그렉 엔드슨 지음

끝으로 이 지면을 통해 그동안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선후배님들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나의 병간호를 위해 모든 정성과 사랑을 아낌없이 보내는, 아내 김수희 씨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회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행운을 오게 하는 방법

Ivanovicchi(1845-1902)

1.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날’ 하고 큰 소리로 외쳐라.
-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2.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라.
- 사촌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되게 마련이다.
3. 밝은 얼굴을 하라.
- 얼굴 밝은 사람에게 밝은 운이 따라온다.
4. 힘들다고 고민하지 말라.
-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이다.
5. 끊임없이 베풀어라.
-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게 마련이다.
6.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라.
- 기가 살아야 운도 산다.
7. 교만하지 말라.
- 애써 얻은 행운 한 순간에 날아간다.
8. 장난으로도 남을 심판하지 말라.
- 내가 오히려 심판 받는다.
9. 말로 상처를 입히지 말라
-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10.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11. 마음을 활짝 열어라.
- 대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운이 들어온다.
12. 원망 대신 모든 일에 감사하라.
-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13. 잠을 잘 때 좋은 기억만 떠올려라.
- 밤 사이에 행운으로 바뀌어 진다. ♠

(편집실)

창밖에 봄비가 내리면

- 고 심재운 동기를 그리며 -



정민남(공사 12기)

창밖에 비가 내리면
봄비가 내리면 창밖을 봅니다.
축축한 봄비에 마음 젖지만
봄비 내려 비 먹은 하늘로 잠기고
소잔등 북악산 능선 위로
뿌연 팔각정 얽혀 하늘에 묻힙니다.

어둠으로 칠한 뿌연 능선 올라
하늘 위로 오르는 나뭇 가지들
붓 갈래 뺏혀 하늘로 오릅니다.

연이어 낮은 산등성이 위로 위로
산울림 따라 하늘 따라 하늘로 멀어지는
네 영혼 좇아 슬픈 노래 부릅니다.

굽어진 능선 아래 아래로
어두운 봄날, 봄비 오는 봄날
네 영혼 화폭 속에 묻고 봄비를 맞습니다. 마음을 적십니다.

영혼 위로 네 영혼 위로 내리는 뿌리는 봄비를 봅니다.
하늘과 능선이 반반인 화폭 속에 어두운 봄비 속에
네 영혼 물으며 노래를 부릅니다.
잘 가라고,
봄비 따라 가라고.

편집자 주 : 2006년 4월 18일 타계한 12기 동기생 심재운의 영혼에 바치는 글임.

투란도트(Turandot)

- 푸치니의 명작 오페라 감상 -

최재구(공사 13기)

바그너는 ‘오페라는 연극의 한 형태’라고 설파하였다. 그는 작곡가일 뿐만 아니라 문학가의 입장에서, 특히 희곡 작가로서 그 독자적인 혁신적 오페라의 해석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오페라는 극적인 요소가 강한 종합예술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보아 음악에 의해 진행되는 작품이다. 따라서 음악이 중심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연된 오페라 <라트라 비아타>의 1948년 공연, 한국 최초의 창작 오페라인 현제명 작곡의 <춘향전>이 6·25전란 속에 부산에서 공연된 것을 보면 한국의 오페라도 반세기를 넘어섰다. 흔히 오페라하면 재미없고 지루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페라의 즐거리를 대강이나마 알고 또 자주 들을 수 있는 유명한 아리아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주 접하다 보면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즐겨 부르거나 듣고 있는 유명한 곡들인 ‘썸머타임’, ‘여자의 마음’, ‘별은 빛나건만’, ‘개선

행진곡’ 등의 아리아들이 ‘거쉬인’의 <포기와 베스>, ‘베르디’의 <리골레토>, ‘푸치니’의 <토스카>, ‘베르디’의 <아이다> 등의 오페라에 나오는 곡들임은 잘 아실 것이다. 또한 오페라는 세계 유명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그 대본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다수 있는데 <맥베스>, <오텔로>, <파우스트>, <전쟁과 평화>, <춘희> 등이 그것이다.

오페라의 즐거리 역시 사랑과 배신, 음모, 복수, 우정 등 인간생활과 연관된 주제들로서 그 내용이 하나의 소설 같은 문학작품으로서의 재미도 곁들여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어떤 개인 날’, ‘허밍코러스’ 등의 아리아로 유명한 미해군 중위와 일본 게이샤와의 사랑을 주제로 한 <나비부인>이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이듯이 <투란도트>는 고대 중국이 그 배경무대가 되어있고 얼마 전 중국의 ‘장이모’ 감독이 연출을 맡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웅대한 스케일과 기라성 같은 출연진, 화려한 무대장치 및 의상 등으로 국

내 팬들을 매료시켰던 작품이라서 우리에게 친숙한 작품이라 하겠다.

작곡 : 푸치니(G. Puccini, 1858-1924)

대본 : '아다미'와 '시모니'가 씀 <전 3막>

등장인물 : 투란도트 공주, 알툼 황제, 티무르(퇴위한 타르타르 왕), 칼라프(타르타르 왕의 아들로 왕자), 류(노예 소녀), 그 외 중국고관 주방대신, 서무대신 등

때와 곳 : 전설시대 중국 북경

초연 : 1926. 4. 25.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주요 아리아 : 공주는 잠못 이루고, 넘치는 눈물, 사랑은 강하도다, 나의 말을 들어주소.

제1막

북경의 궁전 앞 광장으로, 한 관리가 등장에 포고문을 전한다. 절세 미녀 투란도트 공주는 자신이 내는 세 개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할 것이며, 만일 한 문제라도 맞히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사람이 도전했으나 형장의 이슬이 되었고, 곧 페르샤 왕자도 사형이 집행된다는 내용이였다. 군중 속에는 남루한 옷을 걸친 늙은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조국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타르타르 왕 티무르였다. 이 때 군중에 떠밀려 쓰러지면

서 한 젊은 남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웬일인가! 그 젊은이는 전쟁에서 죽은 줄로만 여기고 있던 바로 자기의 아들 칼라프 왕자가 아닌가. 티무르의 시중을 들고 있던 노예 류도 몹시 기뻐하는데 그녀는 왕자를 남몰래 사랑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들은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재회의 기쁨을 누린다.

군중의 함성이 크게 울리더니 투란도트 공주가 성곽 위에 나타나 페르샤 왕자의 사형 집행을 신호한다. 그 순간 칼라프는 그녀의 미모에 매혹되어 수수께끼에 도전할 결심을 한다. 티무르와 류는 극구 만류하지만 막무가내다. 칼라프를 사랑하는 류의 유명한 아리아 '나의 말을 들어주소.'가 불린다. 애절한 그녀의 호소에 왕자는 감동하지만 반드시 수수께끼를 풀겠다고 '울지 말아요, 류!'라는 아리아를 노래한다. 세 명의 중국대신, 군중도 목숨을 아끼라며 그를 저지하지만 그는 투란도트 공주의 이름을 높이 외치면서 단호히 나아가 징을 두드린다.

제2막

군중들은 무명의 왕자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 트럼펫의 팡파르와 함께 황제 알툼이 입장하고 포고문이 다시 큰 소리로 읽혀진다. 황제는

그 왕자에게 늦기 전에 생각을 바꾸라고 권하지만 칼라프는 거절한다. 투란도트 공주는 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먼 옛날, 이 궁전에 쳐들어온 타르타르군의 젊은이가 왕녀를 잡아 잔인하게 능욕하고 죽였기 때문에 외국의 젊은이에게 복수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셋, 죽음은 하나’라고 공주가 말하자 칼라프 역시 ‘수수께끼는 세 가지요, 목숨은 단 하나 뿐이지요.’라며 대답하게 대꾸한다.

첫번째 질문 : “들어라 젊은이여, 어둠을 비추고 다음날 없어지는 것은?”

왕자는 ‘희망’이라고 대답한다.

둘째 질문 : “태어날 때는 열병과 같이 뜨겁다가 죽을 때는 차가워지는 것은?”

왕자는 ‘피’ 하고 외친다.

군중은 환호하고 공주는 화가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그대에게 불을 붙이는 얼음은?”

칼라프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하다가 “투란도트”라고 소리치른다.

마침내 승리하였다. 군중은 축복하지만, 공주는 무명인자와 결혼할 수 없다며 황제에게 달려가 묘책을 강구해 달라고 매달린다. 황제는 단호하게 ‘약속은 신성하다.’라며 거절한다. 칼라프 왕자는 공주에게 한

가지 문제를 제의한다. 만일 그녀가 동이 트기 전에 자기의 이름을 알아 맞춘다면 그녀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며 목숨까지 바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마땅히 자기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3막

궁전의 정원에서 한 관리가 포고문을 외치고 있다. 왕자의 이름이 밝혀질 때까지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관리들과 대신들은 칼라프로부터 이름을 들으려고 뇌물을 주며 금과 행복한 생활의 보장 등으로 유혹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마침내 티무르와 류가 공주 앞에 끌려오고 공주는 왕자의 이름을 댈 것을 강요하지만 거절하자 티무르를 고문하라고 지시한다. 류는 자신만이 왕자의 이름을 안다고 나서자 그녀를 고문하지만 거절하자 공주는 의아해하며 ‘네가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는다. 류는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유명한 아리아 ‘사랑은 강하다.’를 노래하고 계속해서 ‘얼음장 같은 공주님의 마음도’라는 아리아를 부른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병사의 단도를 빼어 자기 가슴을 찌른다. 칼라프는 그녀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애도하고, 군중도 동정한다. 칼라프는 공주의 얼굴에 가려진 베일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죽음과 같은 공주

여! 얼음과 같은 공주여!’ 라고 노래한다.

이 작품은 ‘푸치니’가 끝을 맺지 못한 채 별세함으로써 초연에서는 제3막의 류가 자살하는 장면까지만 공연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방 속에서 피날레를 스케치한 36페이지의 원고가 발견되었고 이를 그의 제자 ‘프란코 알피노’가 작곡하여 완성시켰다.

칼라프는 투란도트를 안으면서 열정적으로 키스를 퍼붓는다. 그토록 냉정하던 그녀의 마음도 차차 붉은 녹뿔 쓰러진다. 그녀는

우아한 자세로 ‘넘치는 눈물’이라는 유명한 아리아로 답한다. 칼라프는 ‘나는 티무르의 아들, 타르타르의 왕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공주도 ‘이제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아오.’라고 답한다. 궁전 밖에서 황제는 왕좌에 앉아있고 광장엔 군중이 운집해있다. 투란도트는 황제에게 ‘아버지,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몸을 돌려 칼라프의 눈을 응시한 채 ‘그의 이름은 사랑 이라고.’라고 소개한다. 칼라프는 공주를 포옹하고, 군중은 꽃을 뿌리면서 즐겁게 사랑의 환희를 노래한다.♠



남대문이 열렸어요!

원스톤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정계은퇴 이후 80세를 넘겨 한 파티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부인이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그에게 이런 짓곳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 총리님. 남대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결하실거죠?”

그러자 처칠은 이렇게 조크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고 합니다.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미 ‘죽은 새’는 새장 문이 열렸다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영국인이 뽑은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처칠을 손꼽는 것도 그의 여유로운 마음에서 묻어나는 탁월한 유머감각도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원의원에 처음 출마했을 때 상대 후보가 그를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늦 접자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러자 처칠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이렇게 응수함으로써 그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된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아마도 나처럼 예쁜 마누라를 데리고 산다면 당신들도 일찍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고...♠

(편집실)



기(氣)를 살리는 등산

등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산이 있어서 산을 오른다는 도사 같은 사람부터 재미있어서 오르는 사람도 있고, 운동 삼아서 산을 오르는 사람도 있다. 살을 빼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산을 오르기도 하고, 즐거워서 재미있게 노래를 부르며 오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산을 오른다. 어떻게 등산을 해야 원하는 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자.

첫째, 입을 다물고 등산을 해야 한다.

평상시 입을 잘 다물고 있는 사람도 힘든 일을 하면 저절로 입이 벌어진다. 입이 벌어지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고 쉬라고 '육체'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인 것이다. 입이 벌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면, 속도를 늦추고 쉬어서 호흡이 편안해지도록 해야 한다. 육체가 쉬라고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Over Pace하면 기가 심하게 손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일 중의 하나가 바로 Sex다. Sex를 할 때 입을 벌리고 하니깐, 끝나고 나서 지쳐서 뺏는 것이다. 방중술을 배우려고 애쓰지 말고, 우선 입을 다물고 한 번 해 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마찬가지로 헉헉대며 입을 벌리고 '기를 쓰며' 등산을 하면 안 된다. '기를 쓰며' 등산을 하면 '기가 소진되어' '기진맥진'해지는 것이다. 기진맥진해져서 뺏는 것은 등산의 목적이 아니다. 입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숨이 차며 가슴이 답답해진다.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면 속도를 늦추고 쉬면서 등산을 하여, 입을 다물고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등산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입을 다물고 하는 것이 몸에 맞추는 것이다.

둘째, 발끝에 힘을 주어야 한다.

등산을 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발끝에 힘을 주는 것이다. 의식하지 않더라도 산을 오를 때는 저절로 발끝에 힘을 주게 된다. 신체의 가장 밑 부분인 발끝에 힘을 줌으로써, 기혈의 순환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요즈음 발마사지가 유행이지만 기껏해야 몇 십분 주무를 뿐이다.

발끝에 힘을 주고 발가락으로 땅을 밀어주듯 걸으면, 사람이 아닌 땅이 내 발을 마사지해 주는 셈이다. 등산을 하면 기본이 몇 시간이다. 사람이 아닌 대지가 내 발을 몇 시간동안 마사지하게 하면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대중 걷지 말고 발끝에 힘을 주어 땅을 밀어주는 기분으로 걸어야 한다.

특히 내려갈 때에는 발끝을 뺏어 발가락부터 땅을 디뎌야 한다. 내려갈 때에 발뒤꿈치부터 디디면 충격이 머리까지 올라와, 뇌에 충격을 준다. 등산이 끝나고 피로한



것도 뒷꿈에 과다한 충격이 가셔이다. 걸을 때 '꿈'에 충격을 주게 걷는 것이 바로 '꿈 때리개' 걷는 것이다. 발끝에 힘을 주면 충격이 흡수되어 머리가 편안하고 피로도 훨씬 덜하게 된다.

셋째, 중심을 잘 잡고 등산을 해야 한다.

길이 가파르고 요철이 심할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저절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 아랫배에 힘을 주면 기혈의 중심인 단전을 자극하게 되고, 단전의 기운이 순환하도록 펌프질을 하게 된다. 기혈의 흐름이 활발해져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신선도나 무술 영화를 보면 도사나 고수가 양 팔을 팽팡 끼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양 손을 호주머니에 넣거나 합장을 하면, 중심을 잡기가 한층 힘들어지고 아랫배에 힘을 더 주게 된다. 위험한 곳에서 억지로 손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지는 말되, 지긋이 아랫배에 힘을 주고 등산을 하면 기혈의 흐름이 촉진되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등산은 즐겁게 해야 한다.

등산은 남이 아닌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서 내지는 자기 몸과 마음이 좋아지라고 하는 것이 등산이다. 등산을 해서 건강이 나빠지고 기분이 상한다면, 등산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면 할수록 더 좋아져야 한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하면 할수록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운이 나야 한다. 자기 좋은 것 하면서 헉헉대고 괴로워한다면,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 등산을 하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몸이 상쾌해진다.

웃으면서 느긋하게 산을 올라야 한다. 자기 몸에 맞춰 적당한 높이를 적당한 시간에 하면 기를 살리는 등산이 된다. 숨이 거칠어지지 않게 입을 다물고 등산을 하면, 평상시 1시간 걸리던 곳도 2~3배의 시간이 걸린다. 서두르지 말고 한발 한발 걸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자. 몸과 마음이 좋아진다면,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감돌 것이다. 무리하게 억지로 등산을 하여 기를 소진하고 기진맥진해지지 말고, 몸에 맞춰 자기를 살리는 등산을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기를 쓰며 산에 올라 기진맥진하지 말고, 기가 살아 기운차게 웃으면서 등산하자. ♣
(편집실)

한
국
항
공
우
주
산
업
(주)

경남 사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이하 'KAI')는 핵심 방위산업이자, 미래 첨단 산업인 항공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9년 10월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항공부문 등 국내 항공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개발센터 전경

설립 이후, KAI는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 최초의 독자개발 항공기 KT-1(기본훈련기)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여 국산항공기 수출 시대를 개막하고, T-50(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나라가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T-50을 통한 항공기 독자개발능력과 S/W 통합 능력을 금년 상반기 사업착수가 예상되는 한국형헬기개발사업 (KHP)과 해군이 운용하는 P-3(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에 적용, 발전시킴으로써 KT-1, T-50 등 고정익 항공기 뿐만 아니라 회전익 항공기 성능개량사업 등 종합 항공기 업체로



사천1공장 전경

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후발주자인 KAI는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 혁신 활동과 더불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본(KT-1) 및 고등훈련기(T-50)를 계열화하고,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T-50, KT-1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대형 민항기인 B787 부품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차세대 민항기 A350, 429헬기 국제공동개발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항공기 업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 등을 추진하여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UAE 상공을 비행하는 T-50

이를 통해 KAI는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춘 세계 10대 항공업체로 성장하고, 2015년까지 항공선진국인 G8 반열에 진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세계 항공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Global KAI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BAE SYSTEMS



BAE SYSTEMS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폭 넓은 전문성과 역량, 세계 정상급 성능 및 일관성 있는 납품 방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트랜스애틀란틱 우주항공/방위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빠른 속도로 실현하는 중이다.



BAE Systems는 육·해·공 및 우주 공간을 망라해 첨단 방위/우주항공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고 지원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군용 항공기, 전투 차량, 해상 선박, 잠수함, 레이더, 항공 전자, 통신, 전자 및 유도 무기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지원하는 이 회사는 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술 유산을 바탕으로 한 혁신의 선두 주자로서 차세대 첩보 방위 시스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5대륙, 130여 개국에 주요 거점과 고객 기반을 구축한 이 기업은 9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자회사 및 합작 투자를 포함한 연 매출이 약 250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 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뛰어난 프로젝트 수주 실적을 거뒀다. 서울에 위치한 지사에서는 20여 개의 방위 산업 부처를 서비스한다. BAE Systems Korea의 Joseph T. McCabe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군현대화 및 인력 재편성을 통해 국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결정한 만큼, 한국 기업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구축한 우수 항공/방위 시스템 업체는 향후 10년간 호시절을 누릴 것이다.”

Infomag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그는 시스템 통합, 복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및 첨단 제작 분야에서 축



적한 핵심 기술을 기준으로 볼 때 BAE Systems가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회사는 시스템, 방위 및 우주 항공 분야에서 핵심적인 심층 기술을 연계하여 가장 복잡한 고급 시스템 작업도 문제 없이 관리하고 토털 솔루션을 공급하는 데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물론 한국 시장 고유의 프로그램에 그러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적용하기 위해 한국 업체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BAE Systems는 군용 항공기, 해상 선박, 잠수함, 우주 시스템, 레이더, 항공 전자, C4ISR, 전자 시스템, 유도 무기를 비롯해 다양한 방위 제품을 설계, 제작, 지원하며 이러한 활동 중 상당 부분은 전세계 파트너들과의 협력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계 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진 이 회사는 특히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동, 아시아 태평양 및 호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완벽한 지원 및 물류 서비스 조사를 갖춘 BAE Systems는 고객과 손 잡고 고객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솔루션 규격을 마련하는 한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비롯하여 제품 교육/수리/관리 그리고 전문 물류 지원 서비스 보급까지 맡고 있다. 항공 분야에서 이 회사는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과 제휴를 맺고 Eurofighter, Joint Strike Fighter, Airbus와 같은 군용/민간 항공기 합작 사업을 이끌고 있다. 또한 전세계 각국의 해군을 위해 뛰어난 선박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프리깃함, 잠수함, 항공

모함을 비롯해 레이더, 미사일, C4ISR 시스템 및 어뢰를 제작한다.

새로운 디지털 전투 공간으로 변모한 육상에서는 레이더, C4ISR 네트워크, 대포, 유도무기 및 전기 광학 기술을 보급하는 중이다. 우주 공간에서도 역시 스테레오 사진측량, 사진해석 및 MC&G(mapping, charting and geodesy)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품질 영상 활용 및 아카이브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주선 발사대, 위성을 비롯한 첨단 전자 시스템의 테스트 장비를 개발, 통합, 제작하고 Atlas/Titan 발사 차량용 항공 전자 시스템도 공급하고 있다.

McCabe에 따르면, 이 회사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VR(virtual reality), 3D 모델링을 위시한 다양한 기술, 재료 및 합성 환경을 망라하면서 끊임 없이 성능의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중이다. 이 회사의 첨단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높은 것은 1만 여명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핵심 활동 영역 중 하나임을 입증한다.

BAE Systems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이 회사의 Hawk Jet Trainer 항공기, 해군의 레이더/전투 관리 시스템 무한궤도 장갑 차량 라이센스 생산 그리고 T-50/F-16/F-15K에 탑재되는 다양한 공수 항공 전자 시스템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McCabe가 밝힌 바에 의하면 한국의 국방 조달 체계가 여러모로 긍정적



인 발전을 거치면서 BAE Systems와 같은 기업으로서는 고도의 기술력 및 지식을 겸비한 조달 책임자들과 함께 일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McCabe는 국방 조달 개혁 사업의 일환이었고 10년간의 무기 조달 연구 결과의 산물인 DAPA(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를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국방부 조달청은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무기 구매/병참 관리 등 주요 국방 조달 책임을 모두 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에는 상당한 투명성이 요구된다. 책임 있는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McCabe는 BAE Systems가 핵심적인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힌다. “모든 측면에서 성과와 가치를 입증해야 하며, 책임 있는 기업 활동 강령(Corporate Responsibility agenda)의 실천에는 예외가 없다. 우리는 방위 산업 분야에서 대표 주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대한 긍지와 더불어 그의 일환으로 타인의 관심사를 이해할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BAE Systems는 고객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지능형 연결을 구축하는데 매진하는 중이다. 이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혁신적인 기술을 최초로 선보여 온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우리가 거두고 있는 성공의 핵심에는 직원들과 회사 전체가 수용한 전략적 비전 및 가치가 자리잡고 있다.”

BAE Systems Plc.

BAE Systems는 육·해·공 및 우주 공간을 망라해 첨단 방위/우주항공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고 지원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 회사는 군용 항공기, 전투 차량, 해상 선박, 잠수함, 레이더, 항공 전자, 통신, 전자 및 유도 무기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지원한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술 유산을 바탕으로 한 혁신의 선두 주자로서 차세대 첩보 방위 시스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BAE Systems는 5대륙, 130개국에 주요 거점을 두고 있다. 9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보유한 이 회사는 자회사 및 합작투자를 망라해 연 148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BAE Systems North America, Inc.

BAE Systems Inc.는 육·해·공 및 우주 공간을 망라해 첨단 방위/우주항공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고 지원하는 BAE Systems Plc.의 미국 자회사이다. 미국 메릴랜드 주 록스빌에 본사를 둔 BAE Systems Inc.는 미국, 영국, 스웨덴, 이스라엘, 남아프리카에서 45,00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면서 1백억 달러가 넘는 연 매출을 올리고 있다. BAE Systems Inc.는 3개의 사업부로 구성되는데 각각 현재 및 미래의 국방/첩보/민간 시스템 솔루션을 지원, 서비스하고 다양한 군용/민간 애플리케이션용 전자 시스템과 서브시스템을 설계, 개발, 제작하며 장갑차/대포/첩보군 수품을 설계, 개발, 제작, 서비스한다.

GE-Aviation

- imagination at work -

현재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약 31만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GE는, 1878년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Thomas A. Edison)이 설립하였다. 1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 최대의 글로벌 복합 기업인 GE는, 1896년도부터 시작한 다우 존스 공업 지수(Dow Jones Industrial Index)에 최초로 포함된 12개 기업 중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2005년, GE는 이전 11개 사업군을, 산업 중심의 6개 사업군, 즉 GE Infrastructure, GE Industrial, GE Commercial Finance, NBC Universal, GE Healthcare, 그리고 GE Consumer Finance로 재조직하였다.



GE Commercial Finance



GE Infrastructure



GE Healthcare



GE Industrial



GE Consumer Finance



NBC Universal

GE Infrastructure는 Aviation, Commercial Aviation Services, Energy, Energy Financial Services, Oil & Gas, Transportation, 그리고 Water Process & Technologies로 구성되어 있다. GE Infrastructure는 전 세계 고객들에 대한 가치(Value) 전달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하 사업 부문들은 GE의 사업 포트폴리오, 풍부한 경험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해결 방안들을 각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GE Infrastructure, Aviation의 J79 엔진(F-4 항공기), J85 엔진(R/F-5E/F 항공기, A/T-37 항공기), F110-129A 엔진(F-15K 항공기), F404-102 엔진(T-50/A-50 항공기), T700 엔진(UH-60 항공기), CT7-9C 엔진(CN235 항공기), CT7-8 엔진(VHX), LM500 엔진(PKX), LM2500 엔진(FF/PCC/KDX), T700-701K 엔진(KHP) 등은 한국군의 다양한 주요 항공기/함정의 핵심 엔진으로, 반세기 동안 한국군에서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GE Infrastructure, Aviation은 지속적인 한국 국방사업 참여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군과의 상호간 깊은 신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GE 엔진 중 하나가 보잉의 최신에 전투기 F-15K 항공기 엔진인 F110-GE-129이다. 작년 10월 서울에어쇼에서 F-15K 항공기가 일반인에게 첫 선을 보였으며, 에어쇼 기간 내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엔진의 대부분은 삼성테크윈에서 면허생산으로 조립되고 있다.

아울러 F404-GE-102 엔진은 한국항공우주산업(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과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공동 개발한 최신에 초음속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인 T-50/A-50 Golden Eagle 항공기 엔진으로서, 현재 한국공군에서 운용 중이다. KAI와 미국 록히드 마틴사는 T-50 항공기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다.



GE Infrastructure, Aviation은 지난 50여년 동안 지속해 온 한국군과의 소중한 우호 관계와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17,000여대의 GE 엔진의 한국국방사업과 항공산업발전 기여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군을 위한 최고의 가치 창출 노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



1 기 사관 동정

공사 총동창회 홈커밍 행사 참석

1기생 홍우회는 2006년 5월 19일 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홈커밍 행사에 20여명의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금년에 50주년 졸업 및 임관 기념일을 맞이하는 4기생들을 축하해 주었다. 최규순 회장은 사관학교가 마련한 오찬장에서 전 동창 회원을 대표하여 4기생과 그 가족에게 축배를 들면서 축하해 주었다. 행사 후 회원들은 관광버스로 화성시 비봉면으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평양가든'을 경영하고 있는 이용균 회원의 미망인 김성자 여사를 위

로하고, 동 가든에서 염소 갈비 전골로 이룬 만찬을 즐긴 후 귀경길에 올랐다. 이날 만찬은 김순경 회원이 후원하였다.



한국 공군 참전유공자회장에 김영환 회원 선임

사단법인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직할회로 예측된 '한국 공군 참전유공자회'는 2006년 3월 23일 공군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가 완료된 김두만 회장 후임으로 그간 부회장으로 공로가 많은 김영환(1기 사관) 회원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규 회원 확대를 위한 조직의 활성화, 자체 조직의 효율적 운용, 그리고 중앙회 및 관련단체와 업무 협조 등을 통

해 이 조직을 발전시킬 것임을 다짐하였다.



2기 사관 동정

김상태 회원(성우회장, 전 공군참모총장)이 2006년 3월 13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에 경비행장을 오픈하였다. 그는 이 비행장에 '승진항공기술'이라는 간판을 내걸었고, 초경량비행기(225kg 이하) 5대를 도입하고 전문 비행교관 2명과 정비사 2명을 채용하여 조종학교도 설립하였다. 그는 한 때 공군참모총장으로서 공군을 최첨단 정예 항공 전력으로 육성하기도 하였지만, 지속적인 국가 항공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항

공 인프라'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념하에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재를 털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 자신의 창공에 대한 꿈은 소년 시절이나 70세를 훌쩍 넘긴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지난 5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마련한 비행장에서 직접 초경량항공기의 조종간을 잡았으며, 그 감회는 남다르다. 장차 이 비행장에서 김 회원과 같은 많은 후진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4 기 사관 동정

공사 4기 서동렬 회원(전 공군참모총장)이 2006년 3월 30일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공군전우회 2006년도 정기총회에서 제20대 공군전우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날 김인기 이임회장(공사 3기, 전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우회기를 이양받은 신입 서동렬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우회 설립목적인 회원 및 단체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도

모하고, 대외적으로는 공군 예비역단체의 대표로서 위상제고와 회원의 권익보호, 현역과 예비역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군 발전 및 국가보위와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전우회 지속사업으로 회원확보와 평생회원화, 지회의 전국화 및 해외지회의 확충과 활성화, 재정자립도 향상 등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8기 사관 동정

8기생 동기회는 공사 입교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가족을 동반하고 흑산도와 홍도를 다녀왔다.

그간 운동을 곁들인 여행을 해 오다가 섬

여행을 하니 나름대로 멋과 낭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참석 회원 모두가 즐거워하였다.

다음의 더욱 아름답고 추억에 남는 여행을 기대한다.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 앞에서 기념촬영 촬영 강영진〉

맨 앞 줄 왼쪽부터 김원슬 부인, 장정호 부인, 최홍범 부인, 김두선 부인, 임승무 부인, 조현호 부인, 백상희 부인, 중간 줄 왼쪽부터 김원슬, 임승무, 김두선, 강재학, 윤석문 부인, 김성환 부인, 안창명 부인, 강영진 부인, 윤대봉 부인, 맨 뒤 줄 왼쪽부터 김명건, 김성환, 조현호, 윤석문, 장정호, 최홍범, 정우신, 백상희, 윤대봉



9기 사관 동정

9기 은하회는 2006년 4월 12일부터 13일
까지 1박2일 간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운동
장소는 강릉기지 체력단련장으로 부부동반
회원 20명, 단독 회원 11명이 참석했으며,
운동 후 강릉 해변 '남양진 횃집'에서 만찬
을 즐기며 회포를 풀고 송정 호텔에서 숙박

후 귀경하였다.

이번 모임에서 권혁달 회원은 관광버스 대
절료를 후원하였으며, 은하회장과 이용세 회
원이 2일 간의 여행 중 음료수 및 술과 간식
을 준비하여 회원들의 여행을 더욱 즐겁게
해 주었다.





11기 사관 동정

11기 비성회원은 국내 47명, 해외 4명으로 동호회 모임을 통하여 회원들간 친목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골프모임은 배정된 팀 수가 부족하도록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바둑모임은 매주 월요일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즐거운 수담을 통한 교제를 나누기에 몰입하여 저녁식사를 못하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겪기도 한다. 등산회는 건강과 친목 도모의 기치 아래 매주 화요일 과천 대공원 산림욕장 산행을 기본으로 하여, 그동안 소요산 자재암,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천안 독립기념관, 도고 박정희 대통령 별장, 유네스코 문화재인 수원성, 군포시 철쭉동산 등을 다니면서 돈독한 우정을 과시하였으며 참가하는 회원이 자꾸 늘어나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또한 IT 시대에 서로 간에 근황을 살피고 또 대화의 친구로 '비성회 카페'를 2월에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이 카페를 통해 만나지 못했던 회원 상호간의 만남이 있고 각종 연락사항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IT 시대에 맞는 우리들의 만남의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15기 사관 동정

2006년 4월 24일 미국 조지아주 스톡브릿지의 이글스랜드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프로리다스 내추럴채리티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신인 낭자가 골프의 여제 애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을 2타 차로 누르고 우승의 쾌거를 이루어 냈다.

한국의 골퍼들은 물론 전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 이 낭자의 이름은 임성아(22세), 바로 15기 임용원 회원의 막내딸이다. 성아 양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김주미와 함께 골프 단체전의 금메달을

따 낸 뒤 프로로 전환, 2004년에 미국에 진출하여 각고의 경력을 쌓아 왔었다.

또한 성아 양의 그 화려한 영광 뒤에는 아버지인 임용원 회원의 자기희생이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임 회원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코치 겸 아버지 노릇을 하느라 자신은 오히려 운동 부족과 건강관리 미흡으로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겨, 막상 당일 날은 TV로 우승 장면을 보고 수술에 들어갔어야 했다.





공사 미주 서부지회(LA) 동정

공사 미주 서부지회(회장 심인태, 공사 30기)는 2006년 3월 25일 LA 거주 공사 1기 조석봉 동문이 타계하심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상호간 신속한 연락을 취하여 많은 동문 및 가족들이 조문을 하도록 도와 주었다. 28일 장례식에는 1기생에서 천영성, 이배선, 이경철, 백주현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2기 최장용, 3기 송태익, 조영근, 이희참 회원과 16기 진일범 회원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공사 총동창회에서 이기현 회장이 총동창회 명의로 조화를 보내고 애도의 뜻을 전해 음으로써 가족은 물론 재미 동문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였다.



공사 미주 동부지회(뉴욕) 동정

이철우 롱아일랜드 한인회 이사장(공사 26기, 예비역 소령)과 김일석 유엔대표부 참사관(공사 30기, 현역 중령)은 롱아일랜드 Freeport 시의 초대로 Memorial Day Parade에 Grand Marshall로 참석했다.

100여년 넘는 역사 이래 최초로 한국공군의 장교가 정복을 입고 Memorial Day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참가한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의를 돈독히 했다.

특히 이 행사에서 Ceremony Chairman Stephen A. Nicolino는 한국공군에서 참석

한 이철우 이사장과 김일석 참사관을 귀빈으로 소개하자 많은 환영의 박수를 받았으며, 전몰장병비(Monument)에 두 개의 큰 화환을 헌화하게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총동창회 알 림

- ◇ 정기총회
 - 제13차년도 운영결과 보고 -
- ◇ 평생회비 적립현황
- ◇ 공사 교육진흥재단 예·결산 공고
- ◇ 전역자 현황
- ◇ 결혼/부음
- ◇ 주소변경
- ◇ 기수별 동기생 회장단
- ◇ 공사 총동창회 홈페이지 안내
-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 ◇ 편집후기/기고안내



- 제13차년도 운영결과 보고 -

회칙 제4장 제12~15조에 의거 13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6월 21일 공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9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공사 총동창회를 맡아서 일할 제14차년도 회장단을 선출한 후 만찬을 즐기면서 회원간의 친교시간을 가졌다.

금번 정기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의 모교인 공군사관학교 교장이 참석하여 공사 총동창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등 유익하고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보고된 지난 일년간의 총동창회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회원현황

임관 총인원 : 8,212명

현재 인원 : 7,535명

예비역 인원 : 2,583명





정 기 총 회

◇ 주요 업무보고

1. 회의 및 간담회

가. 정기총회 : 2006.6.21, 공군 회관

나. 정기 이사회 : 2005.7.28,

임시 이사회 : 2006.4.19

다. 신/구 운영기수 간담회 1회 및 운영기수 이사회 : 9회 실시



2. 부대방문

가. 2005년 후반기 : 공군사관학교, 공군본부/작전사령부, 제18전투비행단

나. 2006년 전반기 : 제19전투비행단, 제20전투비행단

3. 회원 상호간 친목활동

가. 기별 회장단 친선 운동모임 : 2005.10.27, 수원 체력단련장

나. 친선 바둑대회 : 2005.11.17, 공군 회관

4. 모교 관련행사

가. 공사 54기 졸업/입관 축하연 : 2006.2.15

만찬, 동창회장 특강 및 축하선물 증정

나. 총동창회장상 상장 및 금메달 수여 : 2006.3.8, 54기 소위 조원기

다. 우수생도 해외견학 경비 지원 : 2005.11.10

겨울, 여름휴가 중 각 3명의 생도 해외 견학

5. 홈커밍 및 졸업/입관 50주년 행사 : 2006.5.19

가. 모교관련 행사를 통합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고 기생별 소규모 행사를 지양하여 성대한 행사가 되도록 유도

나. 4기생 졸업/입관 50주년 행사와 24기생 30주년 행사, 34기생 20주년 행사를 통합하여 실시



하였음.

다. 제1부 행사는 기념식, 음악회, 오찬 등을, 제2부 행사는 기생별 총회, 운동, 관광, 만찬 등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음.

라. 4기, 24기, 34기는 사관학교 발전기금을 기탁하였고, 1~19기 선배들은 생도들과 사병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사관학교에서는 오찬 및 기념 모자를 회원에게 선물하였음.

6. 성무지 발행

가. 제32호 : 2006. 1. 발간

나. 제33호 : 2006. 7. 발간

7. 경조사에 대한 축하/조의

가. 경사 : 15건(홈페이지에 공지)

나. 조사 : 23건(홈페이지 공지 및 조기 택배)

8. 자랑스런 공사인 표창은 임시이사회에서 의결(2006.4.19)하여 내부규정화 하였으며 금년도는 부칙 제2조(유보)에 의거 선발을 유보하였음.

9. 공사 총동창회 홈페이지 재구축 : 2006.7.1부터 정상 열람 가능

- 주소 : <http://www.kafaaa.or.kr>(Korea Air Force Academy Alumni Association)

- 총동창회 소개, 소식란, 동문동정, 동문의 장 등의 방을 준비

10. 삼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간 교류 활성화

가. 2005년도 2회, 2006년도 : 2회 모임을 가지면서 친목 도모

나. 국방부장관과 간담회 : 2005. 11. 25 현역회원의 활동제한 완화를 요청

◇ 심의의결 안건

안건 1. 13차년도 적립기금 결산 : “적립기금 현황” 참조



정 기 총 회

안전 2. 14차년도 이사기수 의결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참조

안전 3. 14차년도 임원선출 : 특집 “공사 총동창회 정기총회” 참조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기금인수	354,298,201	12차년도
13차년도 적립	21,573,773	평생회비 : 10,300,000 이자수입 : 11,273,773
적립 총액	375,871,974	인계금액

◇ 운영금 현황

1. 운영금 조성 단위 : 만원

항 목	계 획	실 적	비 고
13기 찬조	4,000	4,000	
기별 분담금	1,580	1,580	5기~33기 완납
회원/특별 찬조금	350	450	+100
광고비	600	1,100	+500
이월 운영금	200	200	
소계	6,730	7,330	+600
졸업생 만찬		1,250	+1,250
생도 선물		550	+550
총 계		9,130	+2,400

2. 회원/특별 찬조

성 명	금 액	비 고
김 성 일	300만원	공군참모총장
이 상 훈	50만원	재향군인회장
박 창 규	50만원	전 방공포사령관
심 인 태	30만원	미주 서부지회
서 동 렬	10만원	공군전우회장
김 경 오	10만원	한국 항공회 총재



3. 운영금 집행현황

구분	순번	세부항목	예산	지출	비고
사업비	1	총동창회장상	1,000,000	1,000,000	54기 소위 조원기
	2	자랑스런 공사인	500,000	이관	홈페이지 제작 수고비
	3	임관50주년행사지원	2,000,000	2,000,000	4기 사관(06.5.19)
	4	친선바둑대회	1,500,000	1,302,450	
	5	성무지 발행	6,500,000	5,271,820	우송료, 수고료
	6	부대 방문	2,500,000	3,013,800	6개 부대
	7	조문 활동	2,000,000	1,423,000	조기 1개 추가 제작
	8	생도 해외 견학	5,000,000	5,000,000	2회
	9	동문자녀 일일워크숍	1,000,000	이관	졸업생 만찬경비 이관
소 계			22,000,000	19,011,070	+2,988,930
운영비	10	정기총회	4,000,000	4,000,000	예산액
	11	이사회	1,500,000	1,894,120	
	12	간담회	3,000,000	2,630,060	신/구 이사기수 등
	13	배지 제작	500,000	200,000	
	14	친목단체 환환	500,000	300,000	인접단체 지원
	15	해외동문 우편료	500,000	432,560	미주 동부, 서부
	16	비품 구입	2,000,000	1,990,000	Computer 2대
	17	사무실 임대료	2,000,000	1,851,390	토지, 건물, 전기, 난방
18	사무실 운영비	6,000,000	5,361,350		
소 계			20,000,000	18,659,480	+1,340,520
기타	19	인건비	20,800,000	20,800,000	
	20	이월금	2,000,000	2,000,000	14차 운영기수
	21	예비비	2,500,000	7,776,620	삼사모임:200만원 예정
소 계			25,300,000	30,576,620	-5,276,620
계획대비			67,300,000	68,247,170	-947,170(-1.4%)
추가	22	54기 졸업만찬		16,500,000	선물비 포함
	23	생도선물(홈커밍)		5,500,000	생도 및 사병 간식비
소 계				22,000,000	
총 계				90,247,170	

* 총 결 산 *	91,300,000	90,247,170	잔액 : 1,052,830
------------------	-------------------	-------------------	-----------------------



평생회비 적립현황

◎ 평생회비 납부안내

◇ 평생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 평생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번씩만 분담하는 회비로서 회원당 100,000원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회원당 20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거출하고 있는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 운영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까지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경비는 기별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기수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기수 회원이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 후배 기수를 위하여 선배 기수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고 미납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 평생회비 납부현황

◇ 평생회비 완납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8, 19기



평생회비 적립현황

◇ 2006. 1. 1 이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2006.1.1~2006.6.30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부자 명단					
16	56	41	15						
17	60	49	11						
18	69	69	0						
19	70	70	0						
20	94	52	42	문태인, 서상용, 송기천, 이재명					
21	96	50	46	강한중, 김창욱, 변희룡, 연양희, 오제상, 유경현, 이화민, 장원초, 정호영, 이종원, 임병만, 하태용					
22	103	38	65	김병근, 노장갑, 노창래, 조영기, 한영렬					
23	109	36	73	박성순					
24	130	55	75	오연근					
25	124	34	90	김상진					
26	123	23	100	오희석, 이상길A, 강충순					
27	125	19	106	박준형, 임판식, 한정렬					
28	122	16	106						
29	141	37	104	심평기, 최성욱, 이장근					
30	152	21	131						
31	166	9	157						
32	168	6	162	전종일					
33	173	14	159						
34	167	11	156	손 경, 심재관					
35	252	7	245	최병오					
36	256	7	249						
37	252	3	249	이준혁	46	227	1	226	
38	233	4	229	장창열	47	201	0	201	
39	221	1	220		48	193	90	103	
40	238	1	237	박기태	49	199	1	198	이상현
41	242	1	241		50	193	0	193	
42	276	1	275	이준재	51	202	0	202	
43	270	0	270		52	203	0	203	
44	208	4	204		53	202	0	202	
45	211	1	210	정희두	54	194	0	194	
합	현재인원 : 7,544		납부인원 : 1,650		미납인원 : 5,894				

※ 13차년도 납부자 : 103명(2006. 6. 현재) - 상반기(54명), 하반기(49명).

회비는 납부하였으나 기수를 기재하지 않은 송창희('06.2.1), 방은상('06.3.16), 최병섭('06.4.12), 허기주('06.5.23) 회원께서는 기수를 통보하여 주시고,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06.21 평생회비 납부자께서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회비 적립현황

◇ 2005. 12. 31까지 납부자 현황

기수	납부자 명단
16	강안석, 강철수, 권명남, 김문기, 김성구, 김신희, 김의림, 김정갑, 김정옥, 김종환, 김현석, 김희동, 박성국, 박경웅, 박영기, 박영훈, 배정영, 배충정, 백동기, 서효창, 신무광, 양길수, 오창모, 이상렬, 이선기, 이성우, 이수용, 이은양, 이재기, 임정빈, 장정동, 장진수, 전광남, 정준식, 정혜창, 조창조, 주창성, 지양일, 최동빈, 최동철, 최명상, 최양용
17	강희간, 고영섭, 고종무, 권혁중, 김문수, 김상재, 김석우, 김용수, 김운태, 김용수, 김익창, 김재수, 김종현, 김준수, 박용택, 박윤교, 배중수, 상석근, 서정윤, 손종호, 송대성, 신영실, 안광수, 어수연, 원철희, 유성열, 유정용, 유현준, 윤병인, 이규대, 이규희, 이문호, 이성율, 이용대, 이한호, 이철희, 임홍규, 장상용, 장호근, 전영배, 정태섭, 조규식, 차상호, 차선규, 차욱환, 최복현, 최석권, 한형택, 황창번
18	공명석, 곽조휘, 강제필, 고정훈, 구세환, 구정희, 곽은용, 김두연, 김성진, 김정수, 김종식, 김종하, 김재광, 김재수, 김재운, 김진철, 김태근, 김태수, 김현규, 김현수, 김호중, 나금복, 류효열, 박경점, 박문현, 박병만, 박재근, 박찬태, 석현수, 선치수, 손인익, 송희전, 신명호, 신평근, 엄이웅, 양인선, 오광숙, 오인성, 오병한, 오환근, 윤관중, 윤봉수, 윤재훈, 이기택, 이범산, 이병철, 이봉길, 이선희, 이영준, 이정옥, 이종윤, 이진학, 이태섭, 이하진, 장영수, 장용주, 전영훈, 정용진, 정운태, 정에남, 정원태, 조남홍, 조인행, 진운섭, 최석상, 최태호, 친기광, 허 한
19	강교식, 강성영, 고순형, 김구섭, 김덕실, 김두환, 김만철, 김명립, 김복만, 김성용, 김영철, 김용득, 김우태, 김의중, 김인열, 김정진, 김현진, 민주동, 박규복, 박상인, 박 열, 박창용, 박창진, 박희재, 변상근, 백철인, 서경수, 손영수, 손정환, 송병호, 신명남, 신영덕, 안동원, 엄영성, 양홍진, 유근수, 유병구, 유병권, 유승렬, 유대형, 윤영원, 윤정채, 이계백, 이균신, 이강욱, 이계오, 이규찬, 이달호, 이상배, 이성균, 이성율, 이승호, 이영순, 이인형, 이종관, 이종현, 임종태, 장희천, 전재구, 정선구, 정성진, 정일권, 정하섭, 조명래, 조용희, 주진규, 지광식, 편세영, 하석태, 홍강표
20	강만수, 강유춘, 김광영, 김규식, 김덕선, 김동래, 김삼교, 김성두, 김성일, 김영환, 김오비, 김우식, 김원춘, 김전태, 김정기, 문태일, 박동형, 박 영, 백재현, 서일수, 손준영, 안병걸, 안상복, 유선중, 이병기, 이사룡, 이정학, 이석규, 이영원, 이영희, 이정호, 이재원, 이종득, 이철주, 이치훈, 임근배, 장성문, 전호원, 정제택, 정철호, 조대연, 차종권, 최삼용, 한광성, 한길성, 한준수, 허원욱, 홍갑선, 홍상열
21	강남식, 권 근, 금기연, 금영수, 김광진, 김동기, 김상인, 김영배, 김영학, 김태욱A, 김태욱B, 김형진, 미순복, 명칠원, 민병홍, 박건용, 박경석, 박용복, 박희영, 배민섭, 배창식, 박천수, 성광준, 성봉환, 송동근, 유관옥, 윤희철, 이광영, 이광희, 이수남, 이 찬, 장성태, 정용운, 조오현, 한홍섭, 홍중백, 황사홍, 황성창

평생회비 적립현황



기수	납부자 명단
22	강수준, 김은기, 김인식, 김장호, 김재승, 김철구, 남궁혁, 남백우, 류양수, 민형기, 배효직, 백계근, 손중열, 송인선, 오봉진, 우영운, 윤성기, 윤여동, 이경환, 이광희, 이영하, 이용익, 이정석, 임인빈, 장영현, 장현섭, 정갑순, 최병운, 최승열, 최호준, 한용섭, 한중호, 홍재근
23	강희창, 구본담, 권오봉, 김경순, 김상문, 김성호, 김수환, 김우규, 김창환, 김형선, 박종철, 박종화, 이계훈, 이동호, 이상진, 이수현, 이영덕, 이은수, 윤남수, 윤재원, 윤차영, 장석원, 장창연, 정경도, 정규덕, 정대주, 정희균, 정희진, 조원건, 최상익, 최진수, 허창호, 한규섭, 함경만, 허일영
24	강철혁, 고재봉, 권오석, 공윤석, 김광복, 김동진, 김득환, 김명익, 김상철, 김신원, 김익경, 김재철, 김태열, 나용근, 나재남, 노성래, 류동수, 민경식, 박준홍, 박진열, 백영남A, 백영남B, 백윤호, 설증일, 신진섭, 승광호, 승기백, 안인규, 안창수, 안빈용, 엄경식, 이기용, 이봉운, 이월중, 이영재, 이영중, 이용상, 이재강, 이철순, 전남채, 정남주, 정성화, 정점조, 정필훈, 주신호, 주중수, 천두봉, 최재호, 최재희, 최중용, 최홍진, 하원훈, 허봉재, 현일수, 홍순화
25	강신환, 고덕권, 구도권, 권용국, 김국휘, 김진태, 김종흙, 김정렬, 김종원, 김찬환, 김호식, 류홍규, 박우성, 박춘한, 성신모, 손명환, 심재명, 오창환, 윤양로, 윤용현, 윤학수, 이귀형, 이석찬, 이성우, 이성재, 이승구, 이정표, 임우규, 장래환, 장희태, 최미락, 최승규, 하왕규, 홍건표
26	강희규, 기예호, 김세창, 김태영, 박성보, 박인규, 박중석, 배충영, 변종돈, 성삼식, 송길수, 심상철, 이봉준, 이상길B, 오중기, 유지훈, 윤덕중, 임상현, 전성관, 최병학, 최지수, 허중순
27	고덕규, 고용하, 권오성, 김만호, 김용상, 남은우, 박경규, 박창권, 박한진, 손태용, 신해철, 이무섭, 이영만, 이계훈, 최동환, 한병국, 홍성은
28	김남수, 김도호, 김명호, 김주언, 김항수, 박경진, 서근영, 신영덕, 윤 우, 음종민, 조민식, 이태용, 정재부, 최상일, 하태직, 한창환, 황신섭
29	김경호, 김석중, 김성전, 김영권, 김영분, 김영철, 김원규, 김희영, 김용희, 김철생, 나충렬, 박성기,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오승균, 오영봉, 오한두, 윤주혁, 이규복, 이병두, 이완식, 이일수, 이장근, 전동기, 정남범, 조병호, 최상철, 최승철, 한봉규, 한봉완, 홍상기, 홍승조, 홍재욱
30	강구영, 강성호, 고영문, 김부겸, 김원규, 김용환, 김종선, 김진완, 서휘석, 손한섭, 심인태, 양승주, 이경달, 이연수, 이지영, 장덕진, 정규호, 차주섭, 채덕상, 채종복, 한상덕
31	강경환, 김동철, 김철승, 김홍준, 박항운, 신재현, 임봉수, 장영익, 조환기, 현용희
32	김영수, 김현근, 심부수, 최원기
33	박수철, 박진용, 심동섭, 유준중, 위강복, 이성우, 이경재, 이동교, 이재홍, 장경식B, 장병노, 정영철, 정희주, 한상균



평생회비 적립현황

기수	납부자 명단
34	감수봉, 김학준, 승광혁, 안상철, 안선환, 양희중, 정상길, 정찬영, 조현상
35	강규식, 김중은, 류영관, 민태기, 서완석, 은용섭
36	김성균, 김응문, 나문관, 박종국, 박홍식, 이준모, 임이철
37	이재섭, 최기명
38	신보현, 윤상보, 이정호
39	최정모
40	
41	김민호
42	
43	
44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45	
46	장순천
47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분곤,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승현, 김시몬,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김정훈, 남택수, 문보연, 민병익,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여,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명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합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광, 유 흥,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재영, 이종원, 이종훈, 이찬용, 이창중, 이대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훈,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권석, 최규완, 최성호, 최성호, 최영기, 최재 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분기
49	
50	
51	
52	
53	
54	



공사 교육진흥재단 예·결산 공고

공군사관학교 발전을 위해 기금을 출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5년 사업결산과 2006년 사업예산을 공고합니다.

1. 재단목적사업 현황

사업명	2005년 결산	2006년 예산	비고
생도 공적해외견학	67,570,783	58,900,000	
생도 공적해외견학 인솔	-	2,000,000	
생도 인성교육 특별강연	2,900,000	2,800,000	
생도 LRP 리더십교육	5,340,000	6,300,000	
생도 대외경기출전	4,739,130	5,316,000	
생도 대외학술공모	-	600,000	
훈육요원 인성/리더십교육	1,620,000	2,400,000	
항공우주연구소 부설 전문연구실세미나 지원	4,800,000	4,800,000	
체육교수 학술교류 및 세미나	1,000,000	1,600,000	
교수요원 교육효과제고 연수	460,000	600,000	
주호 항공우주공학 설계대회	1,000,000	1,000,000	지정기부사업
동환학술연구회 연구기금사업 (이공학 학술연구지원)	24,427,260	51,722,000	특수목적사업
풍석군사학 학술기금사업	-	19,921,000	지정기부사업
기독교생도 해외여행 지원	13,400,000	-	
생도 및 장병 격려금	16,000,000	10,000,000	특수목적사업
3사 훈육요원 업무 교류 세미나	-	828,000	
생도 교재제작 지원	-	5,000,000	
교수 해외학술발표 지원	-	1,500,000	
생도 교육발전 자료수집 국외연수	-	2,400,000	
재단 운영 경비	5,483,060	7,680,000	
계	148,740,233	185,367,000	



공사 교육진흥재단 예·결산 공고

2. 출연 현황(2006년 5월 8일 현재)

구 분		출 연 자	출연금 비율
개 인	동 문	이종학(공사 3기) 외 1,481명(기생회 포함)	30%
	비동문	352명	6%
단 체		삼성테크윈 외 45개 단체	64%
계		총 1,881명(개인 및 단체)	

◇ 고액 출연자(기업)

삼성테크윈(주)(10억원), 대우그룹(5억원), (주)삼양화학공업(2억 8백만원), 이종학 교수(1억 5천 8백만원), 최동환 C.T.K건설회장(1억원), (주)보잉(1억원)

◇ 공군사랑 국민은행카드 서비스 확대 안내

공군사랑카드 서비스가 확대되어 공군을 아끼고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GS 칼텍스에서 주유시 리터당 70원 할인
2. 백화점이나 할인점(대형슈퍼, 농수축협 매장, 연금매장 포함) 무이자 할부혜택
3. 기본 연회비가 면제(연 10만원 이상 사용 시)

공군사랑카드 사용으로 모교 후원과 동시에 상기의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공사 동문 여러분의 많은 후원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이사장 공군중장 이 찬



※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교육진흥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서함 335-1호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우)363-849. TEL : 043-290-5916, 7 FAX : 043-298-0922
 E-mail : kafafund@afa.ac.kr

〈편집실〉 본 공고문은 공사 교육진흥재단의 예·결산 공고임. 공사 총동창회장은 공사 발전후원회 회장을 겸임토록 되어 있으며 기부금의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전역자 현황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06.01.31	중장	천기광	2	18	'06.03.31	중령	김종출	3008	31
	중장	이기동	2	20		소령	홍석모	1437C	36
	소장	차종권	2	20		소령	김종환	1427F	37
	준장	장석원	2	23		소령	김성진	1427F	38
	준장	정대주	2	23		소령	김종규	1427F	38
	준장	허일영	2	23		소령	박찬오	1417C	38
	대령	함선필	4609	28		소령	안철한	1417C	38
	소령	김현주	4007	31		소령	이동욱	1417F	38
	소령	박기석	1407H	40		소령	이호곤	1427F	38
'06.02.28	대령	남상돈	7509	27		소령	임종근	1427F	38
	대위	이승준	4007	43		소령	정균우	1437F	38
	대위	조진호	1807	43		소령	조관현	1427F	38
	대위	김경인	4007	49		소령	최용화	1427F	38
	대위	서관수	1407W	49		소령	박기득	1407C	39
	대위	성재만	4607	49		소령	양재일	1407F	39
	대위	이규정	7007	49		소령	윤기남	1407C	39
	대위	이성훈	4007	49		소령	이상민	1407F	39
'06.03.01	소령	김봉림	7007	35		소령	이성수	1407F	39
'06.03.31	대령	김경순	1409F	23		소령	이정운	1407F	39
	대령	김선양	4609	23		소령	정성운	1407F	39
	대령	김정갑	1409F	23		소령	최남수	1407F	39



전역자 현황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06.03.31	대령	김창환	1409F	23	'06.03.31	소령	최철우	8007	39
	대령	윤영선	1409C	23		소령	홍성삼	1407F	39
	대령	이수철	1409O	23		소령	김대송	1407F	40
	대령	장진화	1409F	23		소령	김성근	1407F	40
	대령	최진수	1409F	23		소령	김유수	1407F	40
	대령	이정원	1409F	24		소령	박종석	1407F	40
	중령	정재운	4608	28		소령	장광철	1407F	40
	중령	김영산	4008	30		소령	정우영	1407F	40
	소령	최재표	1407F	40		소령	이수우	1407F	41
	소령	고민석	1407F	41		소령	이옥동	1407F	41
	소령	김동석	1407F	41		소령	이종현	1407F	41
	소령	김오현	1407F	41		소령	전준식	1407F	41
	소령	문희동	1407F	41		대위	이승준	4007	43
	소령	박상용	1407F	41	'06.04.30	중령	김정복	4008	30
	소령	서성빈	1407F	41	'06.05.05	소령	김도현	1407F	44
	소령	서재명	1407F	41	'06.05.31	소령	장형희	1407F	39
	소령	손창선	1407F	41		소령	정재승	1407F	40
	소령	송영민	1407F	41		소령	송동근	1407F	41
	소령	오종선	1407C	41		소령	심재규	1407F	41
	소령	유종근	1407C	41		소령	이부재	1407F	41
소령	이수남	1407F	41	소령		주정목	1407C	41	



결 혼 / 부 음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2006. 1~6)

월	기수 / 성명 / 관계
1월	22기 김기두 장남, 22기 남백우 장녀
2월	12기 박경석 장녀, 15기 김덕훈 차남, 16기 최명상 차녀
3월	11기 심기섭 장남, 12기 강영식 차녀, 13기 유근우 차남, 15기 최성열 장녀, 21기 민병홍 차녀, 22기 김인식 장남
4월	16기 최동철 장남, 19기 이인형 장남, 21기 김용근 장남, 21기 김태욱 장녀
5월	12기 박수길 차녀, 15기 배양웅 차남, 21기 배창식 장남, 21기 성봉환 장남, 21기 이종기 차녀
6월	12기 박원규 장남, 15기 이길환 장남, 18기 김진철 장녀, 18기 박문현 장녀, 20기 김하년 차남, 20기 박동형 장녀, 21기 김영곤 장녀, 21기 윤동현 장녀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월 일	기 수	성 명	비 고
1월 11일	21기	김성환	별세
1월 12일	13기	이종화	모친상
1월 25일	9기	이종만	부친상
2월 1일	10기	황봉석	별세
2월 10일	4기	조경래	모친상
2월 22일	15기	김무웅	부친상
2월 23일	7기	조정기	별세
2월 23일	17기	전영배	모친상
2월 24일	4기	이상용	별세
3월 7일	13기	최재구	장모상
3월 25일	1기	조석복	별세
4월 6일	23기	이계훈	모친상
4월 18일	12기	심재윤	별세
5월 5일	44기	김도현	순직
5월 9일	3기	김인기	장모상
6월 8일	41기	김성대	순직
	44기	이재욱	순직

※ 총동창회에서는 전 회원을 대신하여 공사동창회 명의의 조기를 보내어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에 한해 본인, 배우자, 장인, 장모까지 해당되며 연락을 받는 즉시 국내 어디라도 바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 소 변 경

(2006년 1월~6월 현재)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	이주표	서울 동작구 상도동 래미안 상도동3차㉠ 327-603	156-731	872-9978
1	허명옥	경기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698 동문굿모닝힐 1008-102	413-833	010-7551-5625
2	김동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297-2 서울(분당)시니어타워 1-636	463-940	031-718-0662
2	정태훈	서울 강서구 공항동 651 우림빌라 102	157-818	2663-9514
2	진치범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250 파라다이스빌 106-1306	472-944	031-528-5885
3	김시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96 대우㉠ 102-1601	446-773	031-276-1340
3	정규혁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40-1 동부㉠ 105-704	449-777	031-283-0742
4	최준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백현마을 동일하이빌㉠ 2107-902	446-916	011-1715-0942
5	김홍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7 우장산현대타운 123-701	157-791	2602-1134
5	송기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363-1 남양좋은집 101-907	560-856	063-222-3626
5	한동훈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32 금호 어울림㉠ 1401-1501	472-877	031-592-3724
6	박갑록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신동아 대원㉠ 511-103	441-719	010-9056-3683
6	이상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9 현대홈타운 105-801	446-565	031-263-1635
7	김남수	경기 화성시 남양동 2001 대광파인벨리 113-1804	445-703	031-355-7954
7	오재영	경기 군포시 산본동 1088 한양목련㉠ 1208-2202	435-040	031-341-0490
7	채인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21 쌍용1차㉠ 303-404	446-942	031-274-3298
8	김원술	서울 양천구 목6동 901 신시가㉠ 106-302	158-056	2653-1683
9	임병선	경기 과천시 부림동 25-2	427-803	502-1149
9	서용택	경기 이천시 신둔면 도암2리 135	467-842	031-634-4534
11	신보연	서울 동작구 사동2동 신동아㉠ 401-104	156-771	535-0832
11	이태식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30 현대홈타운㉠ 102-1902	446-562	011-667-6804
12	나광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 향촌롯데㉠ 301-203	431-793	031-388-5176
13	태종민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82 서초래미안㉠ 107-902	137-775	599-8813
15	김평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85-2 LG자이1차㉠ 116-1602	448-533	031-896-8993
16	장정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500 성원쌍매빌 209-904	446-792	031-281-2911
18	이병철	서울 서초구 방배2동 511-43	137-828	336-1234
18	진윤섭	경기 군포시 당동 용호마을 e-편한세상 105-1002	435-010	031-391-7831
20	강유춘	경기 군포시 산본2동 장미㉠ 1135-1104	435-040	031-342-4364
20	권병석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880 열매마을㉠ 6단지 603-1203	305-770	042-477-5137



주 소 변 경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20	김영한	충북 충주시 노은면 신호리 산81 금강종합건설	380-965	817-5331
20	김오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현대홈타운 102-804	446-912	031-305-0390
20	김정기	서울 강서구 염창동 300 강변한솔파크㉠ 106-1103	158-770	2658-6332
20	김종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96-1 동원맨션 101호	463-490	031-714-6614
20	김호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슬내마을 현대홈타운 112-602	446-562	031-286-3247
20	박병도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7 대립2차 e편안세상 201-702	156-020	815-3164
20	송기천	대전시 서구 가장동 나르매㉠ 108-1102	302-182	042-525-7097
20	이병기	대전시 서구 관저동 1130 신선마을㉠ 204-1201	302-724	042-543-2414
20	이석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봉동 강남빌리지 106-1101	448-982	031-266-1401
20	이용주	서울 서초구 방배동 2525 방배우성㉠ 103-205	137-753	597-0319
20	이재명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 110-4 낙원㉠ 4-104	790-751	054-279-0794
20	이화수	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삼성㉠ 104-1002	664-932	055-851-6840
20	정성권	경기 군포시 금정동 한성목화㉠ 136-403	435-050	041-688-4236
20	조홍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855 현대성우3차㉠ 283-903	448-518	031-272-8606
20	차종권	전북 완주군 용진면 구역리 819-14	565-812	063-243-6111
20	최병철	서울 강서구 등촌2동 현대아이파크㉠ 112-1901	157-794	2646-2603
20	한광성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발산리 88	339-833	041-866-7978
20	허만성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7-28 삼호빌라 301호	135-120	514-7780
20	홍갑선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현대홈타운6차㉠ 1601-301	448-160	031-897-6739
20	홍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연남동 동일하이빌2차 206-503	446-571	031-285-0666
21	김상인	경남 진주시 신안동 주공3차㉠ 306-1303	660-769	055-742-2440
21	정용운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7 우장산현대홈타운 133-1101	157-791	3661-9532
22	남궁혁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 307-1101	137-950	595-3316
23	한규섭	서울 마포구 토정동 한강삼성㉠ 103-401	121-060	6394-0656
24	안인규	충남 계룡시 두마면 유동리 대동㉠ 116-1201	321-917	042-542-4550
25	양대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11 보라매파크빌㉠ 106-1106	156-010	833-1012
31	최병석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태성대㉠ 101-802	156-012	845-9947
38	장창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벽산5단지㉠ 513-301	441-440	010-5073-7418

※ 우편물 반송이 너무 많습니다. 주소 변경시 총동창회 사무실로 꼭 연락하여 주십시오!



기수별 동기생 회장단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1기	회장	최규순	533-2485 011-253-3154	14기	회장	이용석	031-716-7702 011-9052-1714
	총무				총무	석영우	592-3509 011-888-3509
2기	회장	김진산	783-9020	15기	회장	명정수	031-385-3960 011-9089-2098
	총무	이유명	782-1707 011-9077-2153		총무	김주식	032-273-2224 011-9827-2224
3기	회장	정규혁	457-0741 011-232-1526	16기	회장	최명상	795-4230 011-253-4230
	총무	김필원	713-2139		총무	박영훈	031-976-1950 018-204-1950
4기	회장	박병순	2298-0017 011-396-8182	17기	회장	윤병인	031-2669-1500 011-754-5455
	총무	조시중	031-233-6750 010-2224-6750		총무	안광수	031-3477-7337 011-253-6728
5기	회장	정재식	019-318-6793	18기	회장	이선희	017-701-8010 031-704-8019
	총무	손정희	855-3231 010-3164-8531		총무	박문현	6739-5945 010-9960-5945
6기	회장	이의재	031-916-3852 017-741-3852	19기	회장	김명립	900-3010
	총무	김원근	584-4827 016-268-4827		총무	윤정채	031-978-5864 017-676-2591
7기	회장	김정동	031-702-3109	20기	회장	김성일	920-6000
	총무	신덕식	031-903-3629 010-2209-3629		총무	서일수	043-294-5325 017-675-0897
8기	회장	윤석문	592-0212 016-747-0220	21기	회장	이 찬	921-6000
	총무	백상희	521-6398 011-725-5171		총무	정용운	3661-9532 019-284-9532
9기	회장	한광희	502-2398 011-330-2398	22기	회장	민형기	031-274-3241 010-5071-5410
	총무	이강홍	031-458-2665 011-758-8811		총무	정갑순	6347-9635 011-303-9677
10기	회장	서진규	032-326-1243 016-695-2135	23기	회장	이계훈	790-2618 017-284-5736
	총무	송창수	031-264-4575 011-229-6901		총무	류연도	011-9349-1332
11기	회장	신기순	2662-0944 018-272-1301	24기	회장	이만휘	920-5010
	총무	박용이	031-264-3152 011-211-8121		총무	최규철	920-4600 017-673-5077
12기	회장	전대우	031-915-5067 010-2352-5008	25기	회장	윤용현	921-6463 017-673-5062
	총무	강영식	6268-8877		총무	이정표	920-3124 017-679-0801
13기	회장	이정호	780-7216 011-9374-7217	26기	회장	오범석	936-7400
	총무	김진석	3473-5219 011-9974-5219		총무	박희수	920-4500



기수별 동기생 회장단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27기	회장	권오성	920-6200	41기	회장	이형헌	920-3484
	총무	홍진기	019-267-3514		총무	이광조	933-3710
28기	회장	최차규	920-2100	42기	회장	이종서	017-672-3318 041-932-0572
	총무	박철규	920-4300		총무	이동현	900-5726 017-671-0446
29기	회장	강명홍	017-673-6267	43기	회장	오동식	017-681-3798
	총무	김만수	920-3440 017-678-3451		총무	이종원	
30기	회장	강구영	920-2220 017-673-6553	44기	회장	고준기	921-5413
	총무	구 정	920-5320		총무		
31기	회장	유명길		45기	회장	윤혁준	938-5400
	총무	조승균	017-685-4797		총무	김대환	
32기	회장	원인철	920-6633	46기	회장	김용진	942-3891
	총무	전종일	920-5320 017-677-7546		총무	서정민	921-5444 017-673-7005
33기	회장	최근영	920-2121	47기	회장	이영진	921-6311
	총무	김지원	920-1610		총무	문성훈	936-6366
34기	회장	박원서		48기	회장	고종진	937-4830
	총무	김학준	017-677-3434		총무	원기탁	921-6230
35기	회장	윤재룡	920-4153	49기	회장	최창환	017-684-0374
	총무				총무		
36기	회장	차승천	920-3391	50기	회장	송준협	017-679-1724
	총무	김효준	920-7012		총무	전수진	017-685-5299
37기	회장	김선열	017-682-3710	51기	회장	유진규	930-5253 011-9152-0451
	총무	강동우	920-5232 017-672-1325		총무	김성경	017-681-6461
38기	회장	심재환	017-676-5785	52기	회장	유영광	017-682-6668
	총무	김봉주	930-7536		총무	이동제	017-683-0452
39기	회장	황보근		53기	회장	장지용	010-4503-4640
	총무	한창옥	017-677-7032		총무	임종성	
40기	회장	이현희	920-4674	54기	회장	조원기	017-541-6266
	총무	김중기	920-5333		총무	권선영	011-9481-5689

※ 임원 변동이 있으시면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총동창회 홈페이지 안내

공사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시험 작동하였고,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홈페이지인 <http://공사총동창회.com> 대신 홈페이지 주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http://www.kafaaa.or.kr>>>>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 기별 분담금이란 총동창회를 담당하여 운영하는 기수에게 총동창회 운영경비를 운영기수 인접 기생에서 일정액씩 분담하여 지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운영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6~13기)는 40만원씩, 운영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14~34기)는 60만원씩 운영기수가 총동창회를 담당하는 시기인 매년 7월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별 분담금 입금 계좌

신한은행 372-04-573214
예금주 : 김길상(해당 기수 사무총장)

편집후기

13차년도 운영기수에서 두 번째 성무지 발간을 준비하다 보니 벌써 한번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무지가 점차 모양을 갖추어져 가고 있고, 아울러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도 회원들의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다가가 공사 총동창회 소식을 전하고 접하는데 한 몫을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귀한 글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과 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승배 동기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바쁜 업무 속에서도 본지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교재창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고안내

공사 총동창회 회지인 “성무” 지는 연 2회(매년 1월 1일, 7월 1일)에 걸쳐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및 생활 잡기(건강관리, 취미활동)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4호 성무지 원고는 2006. 10. 30에 마감합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 2006. 7. 1

발행인 : 이기현

편집인 : 강신해

발행처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58-1(우 156-808)

전화 : 02-823-1091 팩스 : 02-823-1092

Home Page : <http://www.kafaaa.or.kr>

E-Mail : 04airfa@hanmail.net



PEOPLE DO NOT DECIDE
TO BECOME EXTRAORDINARY.
THEY DECIDE TO ACCOMPLISH
EXTRAORDINARY THINGS.

159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에드먼드 힐러리 경(Sir Edmund Hillary)과 세르파 텐징 노르게이(Sherpa Tenzing Norgay)는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른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반세기가 흐른 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의 끊임없는 노력은 히말라야 주민들을 위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 속에 그려왔던 학교, 병원, 진료소, 교량 그리고 생활용수 파이프 라인 등의 건설로……. 그가 산 정상 위에 남긴 발자국은 지워졌을지 모르지만, 그가 세상 위에 남긴 흔적들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OYSTER PERPETUAL LADY-DATEJUST
WWW.ROLEX.COM


ROLEX

서울•우노(현대백화점 압구정점 52F) 02-545-4855
•그리니치(호텔롯데 본점 81F) 02-776-0035
부산•홍보시계(현대백화점 부산점 7F) 051-631-2920
대구•롯데백화점 대구점 1F 053-660-3118

•현대시계(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F) 02-567-8195
•크로노다임(AVENUE 2F) 02-2118-6063
•명보사(광복동 입구 100M) 051-245-5676
A/S 본사(02-777-0931) 및 각 지정 판매점

KAI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대표기업, KAI-

항공우주의 새로운 미래, KAI가 열어갑니다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과
국내 최초로 완제 항공기 수출시대 개막을 이끈
대한민국 유일의 완제기 개발업체, KAI-
이제, 세계를 리드하는 Global KAI로 우뚝 서겠습니다.
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미래 항공우주 기술!
그 중심에 자랑스런 우리의 KAI가 있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http://www.koreaaero.com>